

少陽人 脾受寒表寒病論의 病證 및 藥理에 대한 研究

최지숙* · 김경요*

A Study on Disease and Medical Theory of Soyangin Bisoohan-pyohanbyung-theory

Choi Ji-suk · Kim Kyung-yo

Department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Oriental Medical College Wonkwang University

1. Purpose :

This study is a try for making a historical examination of the symptom, principal medicinal substances and prescription of Soyangin Bisoohan-Pyohan disease.

2. Methods :

I have examined the changes of the recognition of symptom and the history of the development of prescription by comparing the exterior syndrome of Soyangin, related prescription and principal medicinal substances quoted in 「DongYi Soose Bowon」 with past original texts and 「DongYi Bogam」.

3. Results and Conclusion :

Lee Je-Ma adopted most of the exterior syndrome of Soyangin from Zhang Zhong-jing's 「Shanghanlun」. But he adopted only a few medicinal substances for prescription and most of prescriptions written after the Song period.

The prescriptions for Soyangin Bisoohan-Pyohan disease are fundamentally composed of medicinal substances to lower yinqi and to eliminate the heat of thoracic part caused according to the degree of symptom and medicinal substances to strengthen damaged yinqi are added to the prescriptions.

Key word : Soyangin, Bisoohan-Pyohan disease, yinqi, 「DongYi Soose Bowon」.

*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사상의학과

抄 錄

1. 목 적

少陽人 脾受寒表寒病證의 주요 처방과 약재의 효능 및 병증의 인식을 역사적으로 고찰해보고자 한다.

2. 방 법

『東醫壽世保元』少陽人 脾受寒表寒病證의 주요 처방 및 약재의 효능을 관련 조문과 원출전 및 東醫寶鑑을 중심으로 과거문헌을 비교하여 少陽人 表病證의 인식근거를 추론하며 처방과 약재의 효능 인식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3. 결과 및 결론

李濟馬는 少陽人 表病證을 대부분 張仲景의 『傷寒論』에서 취하였으나, 처방에 있어서 몇몇 약재를 인용했을 뿐 송대이후 처방으로 대신했다. 少陽人 脾受寒表寒病證의 처방구성은 陰氣를 下降시키는 약물을 기본전제로 그 증상정도에 따라 수반된 胸膈熱을 치고 손상된 陰氣를 보하는 약재를 첨가함으로써 구성되었다.

중심단어 : 少陽人, 脾受寒表寒病證, 陰氣, 東醫壽世保元.

I. 緒 論

李濟馬는 『東醫壽世保元·醫源論』에서 자신이 醫學 經驗이 있는지 5, 6千年後에 태어나 前人의 著述을 바탕으로 우연히 四象人 臟腑生理를 얻었다고 밝히고, 歷代醫學의 흐름을 神農黃帝 以後 秦漢以前의 病證藥理는 張仲景이 傳하여 醫道가 始興하고, 南北朝이후 隋唐 以前의 病證藥理는 朱肱이 傳하여 醫道가 中興하고, 宋元이후 明以前의 病證藥理는 李

梲·龔信·許俊이 傳하여 醫道가 復興하였다¹⁾고하여 기존의 醫學史를 要約하였다. 더불어 歷代醫家의 勤勞功業을 論하면서 張仲景·朱肱·許俊을 첫째로 꼽고 李梲·龔信을 그 다음으로 두었다. 이처럼 李濟馬는 자신의 醫學이 既存醫學의 經驗을 바탕으로 하여 成立되었음²⁾을 말하면서 나아가 四象醫學이 既存醫學의 延長線上에서 나타난 發展의 醫學임을 提示하고 있다.

즉, 四象醫學이 既存醫學과는 理論과 處方 等 많

1) 洪淳用, 李乙浩 譯 : 四象醫學原論, 서울, 행림출판사, 1973, p.106

은점에서 意見을 달리하지만 이것은 過去의 醫學을 發展的 次元에서 새로운 視覺으로 認識轉換하여 既存醫學과 連續線上에서 獨創的인 醫學으로 발전시킨 것이지 전혀 根源이 다른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또, 四象醫學의 原典이라고 할 수 있는 『東醫壽世保元·病證論』에 제시된 引用文獻을 살펴보면 約 22가지 程度이지만 실제 引用文句를 조사해 보면 거의 모두가 許俊의 『東醫寶鑑』에서 直接 引用된 것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고 李濟馬가 다른 文獻을 參照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다. 『東醫壽世保元·醫源論』에서 李濟馬가 「靈樞」, 「素問」에 대해 「醫家格致之宗主而苗脈之所自出也」³⁾라 하면서도 “그 學說을 그대로 다 믿을 것은 못된다.”라고 評하고 있으며, 四象人 「辨證論」 末眉에 “靈樞書中 有太少陰陽五行人論而 略得外形 未得臟理 蓋太少陰陽人 早有古昔之見而 未盡精究也”⁴⁾라 하여 「靈樞」第64篇 「陰陽二十五人篇」과 第72篇 「通天篇」의 內容을 언급하고 있지만 『東醫寶鑑』에는 이 內容이 없는 것을 볼 때 李濟馬는 「素問」, 「靈樞」, 「傷寒論」, 等を 熟知한 상태에서 醫學的 經驗과 思想은 『東醫寶鑑』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으며 이를 根據로 새로운 視覺의 醫學인 『東醫壽世保元』을 著述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四象醫學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既存醫學의 研究資料들을 李濟馬의 觀點에서 폭넓게 探究하여 過去 李濟馬가 어떻게 四象病證과 藥物을 體質別로 分類해 내었는가를 밝혀 내고 아직 덜 갖추어진 藥物 및 病證을 推論해내는 作業이 先行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재 우리에게는 四象醫學의 古文研究가 상당히 未洽한 狀態이다.

이에 本論考는 少陽人 脾受寒表寒病의 主要 條文과 處方을 過去 文獻 위주로 조사하되 『東醫寶鑑』 및 原出典을 찾아서 서로 比較하고, 少陽人 表病證의 認識根據를 推論하며, 少陽人 脾受寒表寒病證의 主要處方과 藥材의 效能 認識의 歷史를 探究함으로써 少陽人 表病證을 再檢討해 보고자 한다.

II. 研究 方法

歷代 醫書들 중에서 『東醫壽世保元』의 少陽人 脾受寒表寒病의 條文을 中心으로 病證, 處方이 記載된 文句를 찾아보았다.

本論은 다음과 같은 方法으로 定理하였다.

- 1) 病證 研究는 少陽人 表寒病의 歷代 醫家들의 敘述을 時代循으로 考察하였다. 이때 原文 뿐 아니라 原文을 引用한 後代 醫書들도 함께 모아 봄으로써 病證 認識과 分析의 發展相을 把握할 수 있도록 하였다.
- 2) 處方 研究도 少陽人 表寒病의 主要 處方에 대한 歷代 醫家들의 處方을 時代順으로 考察하였다. 이때 原處方 뿐만 아니라 原處方을 變形, 發展시킨 後代의 處方들도 함께 모아 봄으로써 處方의 發展相을 把握할 수 있도록 하였다.
- 3) 『東醫壽世保元』에서 관련 條文을 모아 함께 考察하고, 그 아래에 分析을 加하였다. 이 때 條文 番號는 四象醫學 教科書⁵⁾의 條文 番號를 따랐

2) 洪淳用, 李乙浩 譯 : 上揭書, p.95

3) 洪淳用, 李乙浩 譯 : 上揭書, p.113

4) 洪淳用, 李乙浩 譯 : 上揭書, p.144

5) 전국한의과대학 사상학교실 :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1997

- 다.
- 4) 「傷寒論」에서 관련 條文을 모아 함께 考察하였는데, 이 때 條文 番號는 「傷寒論譯證6」의 條文 番號를 따랐다.
 - 5) 띄어쓰기가 되어 있지 않은 引用文은 論者가 임의로 띄어쓰기를 하였으며, 引用文에 대한 解釋은 하지 않았다.
 - 6) 藥材의 分析은 먼저 「本草學」7)의 效能 主治를 통해 概要를 파악한 후, 「中醫學辭典8)과 「方劑學辭典9)」 등을 參考하여 效能 認識과 處方 啓發의 歷史를 調査하여 李濟馬가 어떻게 이들 藥材들을 少陽人의 藥材로 把握했는지를 研究하였다. 따라서 本草書와 處方의 出典은 보기 편하게 時代循으로 表를 만들었으며, 書名은 紙面 關係上 「東醫寶鑑10)」에서 쓴 縮約語로 標記하였다.
 - 7) 藥材 分析時 效能과 主治, 그리고 本草書 敘述은 「中藥大辭典11)」을 참고했으며, 處方例는 「標準本草學12)」을 참고했다.

Ⅲ. 本 論

1. 東醫壽世保元에 나타난 少陽人의 病理

1) 관련 원문13)

- 2-11 肺氣 直而伸 脾氣 栗而包 肝氣 寬而緩 腎氣 溫而蓄
- 2-12 脾以納 腎以出 腎脾者 出納水穀之府庫也
- 2-13 衰氣 直升 怒氣 橫升 喜氣 放降 樂氣 陷降
- 9-8 張仲景所論 少陽病 口苦 咽乾 目眩 耳聾 胸脇滿 或 往來寒熱之證 卽 少陽人 腎局陰氣 爲熱邪所陷 而 脾局陰氣 爲熱邪所壅 不能下降 連接於腎局而 凝聚腎間 膠固因滯之病也...此證 清裡熱而 降表陰 則 痰飲自散而 結胸之證 預防不成也 清痰而燥痰 則 無益於陰降 痰散延拖 結胸將成而 或別生奇證 也
- 9-32 亡陰者 陰 不下降而 反爲上升則 亡陰也 陽盛格 陰於下則 陰爲陽壅 不能下降於膀胱 上逆背膈而 內通膈裡故 腸胃畏寒而 泄下也 畏寒而 泄下者 非 陰盛也 此 所謂內炭外水 陰將亡之兆也
- 9-33 少陽人病 一日滑利 陰氣下降 手足掌心汗則 病必 愈也而 二日三日 泄不止 病不愈則 陰不下降而 亡 陰 無疑也...
- 16-8 ...水穀 納於胃而 脾衛之 出於大腸而 腎衛之 脾腎 者 出納水穀之府庫而 迭爲補瀉者也
- 18-16 少陽人 大便善通則 完實而無病 少陰人 飲食善 化則 完實而無病
- 18-17 少陽人 大便不通則 胸膈 必如烈火 少陰人 泄瀉 不止則 臍下 必如冰冷

2) 考 察

李濟馬는 少陽人과 少陰人의 病證을 陰陽升降의 問題로 보았다. 既存醫學의 辨證體系는 크게 陰陽辨證과 五行辨證 두 가지가 있다. 이는 寒熱 虛實 表裏 陰陽으로 나누는 八綱辨證과 五行論을 바탕으로 臟腑辨證으로 나눌 수 있다. 八綱辨證이 모든 病證을 적절하게 分析해 주지 못하므로 五行論에 바탕한 臟

- 6) 蔡仁植 : 傷寒論譯證, 서울, 高文社, 1971
- 7) 全國韓醫科大學 本草學教授 : 本草學, 서울, 永林社, 1991
- 8) 新文豐出版公司 : 中醫學辭典, 台北, 新文豐出版公司, 1982
- 9) 江克明 包明蕙 : 校正方劑大辭典, 서울, 醫聖堂, 1969
- 10) 許俊 :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83
- 11) 江蘇新醫學院 : 中藥大辭典, 서울, 成輔社, 1982
- 12) 金晟壽 : 標準本草學, 서울, 進明出版社, 1975
- 13) 전국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 前掲~書, p. 437, 465, 467, 491, 496

腑辨證이 따로 必要했던 것이다. 表裏 寒熱 虛實은 모두 그 概念上 陰陽의 部分 集合이므로 八綱辨證으로 是 結局 全體的 陰陽 偏差만을 알아낼 수 있을 뿐 어느 臟腑의 虛實인지는 把握할 수 없기 때문이다. 臟腑辨證에서는 五臟 각각의 虛實을 먼저 把握하고 五臟 사이의 生剋관계로 相對的 虛實 관계와 因果 關係를 分析하여 病의 根源을 把握해 들어간다. 반면 四象醫學에서는 四臟의 大小偏差를 脾胃와 肝肺로 착지어서 相對的으로 把握한다. 특히 脾胃은 升陽-降陰의 작운동을 하는 것으로 少陰人, 少陽人의 病證은 陰陽升降의 病理로 分析된다. 論理가 一貫되지 못했던 既存醫學과는 달리 病理 解析과 治法에 이르기까지 一貫되게 陰陽升降의 論理가 展開됨을 알 수 있다. 脾胃의 작운동을 分析해 보면 脾氣는 橫升하는 怒氣의 힘을 받처럼 써서 陽氣를 上升시키고 腎氣는 陷降하는 樂氣의 힘을 따뜻하게 갈무리 하여 陰氣를 下降시킨다(2-11, 2-13)¹⁴⁾ 少陽人의 경우 上記 引用된 文句와 같이 陰氣가 熱邪 때문에 내려가지 못하고 臍間에 因滯되는 증세와 이보다 陰氣가 더욱 損傷되어 내려가야 할 陰氣가 거꾸로 上升하는 亡陰證 等(9-8, 9-32)이 주로 나타나게 된다. 汗出은 그 位置에 따라서 意味가 달라지는데 少陽人의 경우 몸의 바닥인 손발바닥에서 땀이 나면 因滯되어 있던 陰氣가 下降하는 證據이니 반드시 病이 낮는다고 하였다.(9-33) 이와 같이 少陽人은 陰陽升降의 病理로 把握되었으며 특히 陰氣未降이 病의 原因으로 治法 또한 陰氣를 下降시키고 熱邪를 除去하며 損傷된 陰을 더해줌으로써 무너진 陰陽升降의 均衡을 回復시켜 주는데 있다.

2. 少陽人 脾受寒表寒病論의 過去 病論의 認識

1) 少陽傷風證

(1) 內經 [熱論篇第三十一]15)

- ... 今夫熱病者 皆傷寒之類也(1) 或愈或死 其死皆以六七日之間 其愈皆以十日以上者 何也? 不知其解 願聞其故. 岐伯對曰: 巨陽者 諸陽之屬也 其脈連於風府 故爲諸陽主氣也 人之傷於寒也 則爲熱病 熱雖甚不死 其兩感於寒而病者 必不免於死.(2)
- ... 傷寒一日 巨陽受之 故頭項痛 腰脊強 二日陽明受之 陽明主肉 其脈俠鼻 絡於目 故身熱目痛而鼻乾 不得臥也 三日少陽受之 少陽主膽 其脈循脇絡於耳 故胸脇痛而耳聾 三陽經絡 皆受其病 而未入於臟者 故可汗而已(3) 四日太陰受之 太陰脈布胃中 絡於喉故腹滿而溢乾...
- ... 帝曰: 治之奈何? 岐伯曰: 治之各通其臟脈 病日衰已矣 其未滿三日者 可汗而已 其滿三日者 可泄而已.(4)
- ... 其病兩感於寒者 其脈應與其病形何如? 岐伯曰: 兩感於寒者 病一日則巨陽與少陰俱病 則頭痛口乾而煩滿 二日則陽明與太陰俱病 則腹滿身熱 不欲食 譫言 三日則少陽與厥陰俱病 則耳聾囊縮而厥 水漿不入 不知人 六日死.

(2) 傷寒論¹⁶⁾

- 271 少陽之爲病 口苦咽乾 目眩也
- 272 少陽中風 兩耳無所聞 目赤 胸中滿而煩者 不可吐下 吐下卽悸而驚
- 273 傷寒 脈弦細 頭痛發熱者 屬少陽 少陽不可發汗 發汗卽譫語 此屬胃 胃和卽癒 胃不和卽煩而悸
- 274 本太陽病不解 轉入少陽者 脇下鞭滿 乾嘔不能食 往來寒熱 尙未吐下 脈沈緊者 與小柴胡湯 若吐下發汗 溫針 譫語 柴胡證罷 此爲壞病 知犯何逆 以法治之

14) 金鍾悅 : 太陰人 肝受熱 裏熱病論을 통해 살펴본 過去醫學과 東醫壽世保元의 陰陽觀의 差異, 四象醫學會誌 9(1) : 130-131, 1997

15) 楊維傑 : 黃帝內經素問靈樞譯解, 서울, 成輔社, 1980, p. 250

16) 蔡仁植 : 前掲書, pp. 192-194

(3) 東醫寶鑑 [雜病篇 寒 少陽形證用藥]17)

『傷寒論』과 相同

(4) 東醫壽世保元¹⁸⁾

5-5 古人 以六經陰陽論病 故張仲景著傷寒論 亦以六經陰陽該病證(8) 而以頭痛 身疼 發熱 惡寒 脈浮者 謂之 太陽病證 以口苦 咽乾 目眩 耳聾 胸脇痛 寒熱往來 頭痛 發熱 脈弦細者 謂之 少陽病證...六條病證中 三陰病證 皆少陰人病證也 少陽病證 卽少陽人病證也 太陽病證 陽明病證 則 少陽人 少陰人 太陰人病證 均有之而 少陰人病證 居多也(9) 古昔以來 醫藥法方 流行世間 經歷累驗者 仲景探摭而著述之...

9-5 口苦 耳聾 胸滿者 少陽傷風證也

9-7 張仲景所論 少陽病 口苦 咽乾 目眩 耳聾 胸脇滿 或往來寒熱之證(5) 卽 少陽人 腎局陰氣 爲熱邪所陷而 脾胃陰氣 爲熱邪所壅 不能下降 連接於腎局而 凝滯腎間 膠固因滯之病也(6) 此證 嘔者 外寒 包裡熱而 挾痰上逆也 寒熱往來者 脾胃陰氣 欲降未降而 或降故 寒熱 或往或來也 口苦 咽乾 目眩 耳聾者 陰氣因滯腎間 欲降未降故 但寒無熱而 至於耳聾也 口苦 咽乾 目眩者 例證也 耳聾者 重證也 胸脇滿者 結胸之漸也 脇滿者 猶輕也 胸滿者 重證也 古人之於此證 用汗吐下三法則 輒生譁語壞證 病益危險故 仲景變通之而 用小柴胡湯 清痰燥痰 溫冷相雜 平均和解 欲其病不傳變而 自愈 此法 汗吐下三法 論之則 可謂近善而巧矣 然 此小柴胡湯 亦非平均和解不傳變之藥則 從古斯今 得此病者 眞是寒心矣 耳聾 脇滿傷風之病 豈可以小柴胡湯 擬之乎 噫 後來魏信所製 預防收毒散 豈非 表寒病 三神山 不死藥乎 此證 清裡熱而 降表陰則 痰飲自散而 結胸之證 預防不成也 清痰而燥痰則 無益於陰降 痰飲延拖 結胸將成而 或別生奇證也(7)

[考 察]

少陽病에 대한 최초의 언급은 『素問·熱論篇』¹⁹⁾에서 시작된다. 그러나 『內經·熱論篇』의 六經病證의 인식은 陽證과 陰證으로 크게 나누고,

여기에 經絡의 기초적인 概念을 代入하여 轉變過程을 說明하고 있다. 上記 引用文句 (1),(2)를 보면 熱病이란 外感傷寒의 概念으로 外部의 寒邪가 侵入하면 體內의 陽氣가 陽經에서 만나 싸우게 되므로 그 證據로 發熱하는 陽證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다. (3),(4)를 보면 少陽病이 經絡臟腑學과 聯關되어 轉變되며 그 治法에 있어서도 아직 邪氣가 陽經인 表部에 있으므로 發汗을 爲主로 治療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兩感傷寒되어 陰陽表裏가 모두 邪氣에 損傷되면 죽는다고 하였다.

즉, 內經에서는 疾病의 經過와 病證의 特徵을 傷寒이 經過하는 日數와 三陰三陽의 次序에 따른 經絡中心으로 把握한 데 比하여 李濟馬는 人體를 上下部位에 따른 陰陽升降病證으로 要約함으로써 一貫性이 不足했던 既存醫學에 比해 보다 發展的인 病理를 提示했다.

傷寒論 역시 當時 영향으로 六經과, 陰陽論으로 病證을 分類한 것이다(8). 이에 反해 李濟馬는 四象體質(陰陽升降 및 聚散)이라는 觀點에서 病證을 再分類하고 少陽病證은 少陽人 病證으로 보았다.(9). 少陽人의 경우에 脾胃受寒하여 表寒病이 나타난 것으로 이를 治療하기 위하여 清痰燥痰, 溫冷相雜, 平均和解하는 小柴胡湯을 사용한 張仲景을 크게 批判하고, 이에 病理, 證狀, 治法을 李濟馬는 (5),(6),(7)에서 잘 밝혀 놓았다. 여기에서 少陽傷風證에 대한 既存醫學과 四象醫學의 病理를 比較해 보면 다음과 같다.(表.1)

17) 許俊 : 前掲書, p. 382

18) 전국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 前掲書, pp. 442-443, 465

19) 楊維傑 : 前掲書, p. 250

〈표 1〉 少陽傷風證에 대한 既存醫學과 四象醫學의 病理 比較

	既存醫學	四象醫學
脇下硬滿	經絡의 으로 해석을 많이함. 즉 足少陽膽經이 脇下를 지나고 少陽經에 邪氣가 在하면 脇下硬滿하게 된다.	인체를 上下개념으로 봄. 少陽人이 降陰되지 못하여 마치 구름이 걸려 있는 것처럼 胸脇에 걸려서 내려오지 못하고 딱 차 있는 것
乾嘔不能食	胃氣不能下降으로 胃氣가 上逆하기 때문으로 봄. 이는 少陽木邪가 剋土하기 때문이라는 說도 있다.	少陽人은 臂局의 陰氣가 弱하기 때문에 降陰되지 못하여 기운이 위로 逆上되므로 먹지 못하고, 또한 내부에 熱이 盛하여 헛구역질을 하게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原文에 皆結胸病而膈內拒通手不可近燥渴譫語者 結胸之最尤甚證也 飲水水入即吐 心下痞硬滿乾嘔短氣者 次證也.라 하였다.
往來寒熱	半表半裏에 邪氣가 있으므로 表가 풀리지 않아 寒하고 裏와 不和하므로 熱이 난다고 봄.	脾局의 陰氣가 내려가려고 하여도 내려가지 못하고 或은 내려가기도 하기 때문에
脈弦細	脈弦은 少陽脈이고, 細한 것은 病이 장차 내부로 들어가는 반응으로 봄	
頭痛發熱	太陽表證이 풀리지 않은 것. 그러나 少陽證은 半表半裏證으로 이것만보고 麻黃湯을 써서 발한시켜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少陽은 津液이 말라 胃中을 건조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太陽+少陽病이 아니라 "少陽人의 表病"으로 봄. 陰氣가 내려가지 못하고 위(증상초)로 熱氣가로 치솟아 頭痛發熱한다고 봄
譫語	津液이 消耗되어 胃中이 건조해져 그 熱이 心血을 혼란하게 하므로 言難하게 됨	少陽人이 降陰되지 못하고 熱氣가 위로 치솟는 것이 극심한 형태로 봄.

2) 結胸證

(1) 傷寒論²⁰⁾

- 135 問曰 病有結胸 有藏結 其狀何如 答曰 按之痛 寸脈浮 關脈沈 名曰結胸也 何謂藏結 答曰 如結胸狀 飲食如故 時時下利 寸脈浮 關脈小細沈緊 名曰藏結 舌上白苔滑者 難治
- 137 病發於陽 而反下之 熱入因作結胸 病發於陰而反下之 因作痞 所以成結胸者 以下之太早故也
- 141 ... 頭痛發熱 微盜汗出而反惡寒者 表未解也 醫反下之 動數變遲 膈內拒痛 胃中空虛 客氣動膈 短氣躁煩 心中懊憹 陽氣內陷 心下因鞭即爲結胸 大陷胸湯主之...
- 142 傷寒六七日 結胸熱實 脈沈而緊 心下痛 按之石鞮者 大陷胸湯主之

- 145 小結胸病 正在心下 按之即痛 脈浮滑者 小陷胸湯主之
- 149 寒實結胸 無熱證者 與三物小陷胸湯 白散亦可服
- 157 傷寒五六日 嘔而發熱者 柴胡證具 而以他藥下之 柴胡證仍在者 復與柴胡湯 此雖已下之 不爲逆 必蒸蒸而振 却發熱汗出而解 若心下滿而更痛者 此爲結胸也 大陷胸湯主之...

(2) 東醫寶鑑 [雜病篇 寒 傷寒結胸]²¹⁾

病發於陽 而反下之 熱入因作結胸 「仲景」
傷寒表未解 醫反下之 膈內拒痛 手不可近 ...云心下滿而硬痛 此爲結胸 宜大陷胸湯 「仲景」
小結胸者 正在心下 按之則痛 脈浮滑 宜小陷胸湯 「醫鑑」

20) 蔡仁植 : 前掲書, pp. 103-104, 106-107, 109, 112, 118-119

21) 許俊 : 前掲書, p. 396

寒實結胸 無熱證者 宜三物白散 小陷胸湯 「醫鑑」
但結胸無大熱者 此爲水結在胸脇 但頭汗出 名曰水結
胸 小半夏湯加茯苓主之(方見入門)
熱實結胸 宜用大陷胸丸 「綱目」

[考察]

結胸證의 최초 원문은 「傷寒論」으로 張仲景은 陰陽, 六經論의인 입장에서 太陽病을 잘못 攻下시켜 表熱이 內陷하거나 太陽經에서 陽明經으로 內傳하여 陽明實熱이 內陷하여 胸中에 본래있던 水飲과 결합하여 胸膈部에 阻滯되어 나타나는 證을 말한다.(條文137, 141) 그 症狀의 차이로 大陷胸湯(丸)證(141, 142, 143), 小陷胸湯證(145), 五苓散證, 十棗湯證, 三物小白散證(149)으로 分類하였다. 역시 少陽人 結胸證과 少陰人 藏結을 分類는 하였으나 (135) 體質의인 差異를 발견하지 못했다. 以後 「東醫寶鑑」에서도 張仲景의 「傷寒論」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다만 證이 더욱 分化되어 水結胸證이 나타나게 된다.

(3) 東醫壽世保元²²⁾

- 9-8...口苦 咽乾 目眩者 例證也 耳聾者 重證也 胸脇滿者 結胸之漸也 脇滿者 猶輕也 胸滿者 重證也.....清裡熱而 降表陰則 痰飲自散而 結胸之證 預防不成也 清痰而燥痰則 無益於陰降 痰散延拖 結胸將成而 或別生奇證
- 9-17 論曰 右張仲景所論三證 皆結胸病而 膈內拒痛 手不可近 燥渴譫語者 結胸之最尤甚證也 飲水 水入卽吐 心下硬滿 乾嘔 短氣者 次證也 凡結胸病 皆藥湯入口 輒還吐 惟 甘遂末 入口 口涎含下 因以溫水 漱口而下則 藥不還吐 嘗治結胸 用甘遂散 溫水調下 五次輒還吐 至六次不還吐而 下利一度 其翌日 又用甘遂 一次通利而 病愈 凡結胸 無非陰證 當先用 甘遂 仍煎 荊防導赤散 以壓之 乾嘔 短氣

而 藥不還吐者 不用 甘遂 但用 荊防導赤散 加白茯苓 澤瀉 各一錢 二三服 又 連日服而 亦病愈 燥渴譫於者 尤極險證也 急用 甘遂 仍煎 地黃白虎湯 (表 2) 三四貼 以壓之又 連日服 地黃白虎湯 張仲景曰 傷寒 表未解 醫反下之云者 以承氣湯下之謂也 非十覆陷胸之謂也(1) 然 十覆陷胸 不如 單用 甘遂 或用 甘遂天一丸 結胸 甘遂末 例用三分 大結胸 用五分

- 9-18 甘遂 表寒病 破水結之藥也 表病 可用甘遂而 不用石疋 石疋 裡熱病 通大便之藥也 裡病 可用石疋而 不可用甘遂 然 揚手擲足 引飲泄瀉證 用石疋 痺風膝寒 大便不通證 用甘遂
- 9-19 少陰人 傷寒病 有小腹硬滿之證 少陽人 傷寒病 有心下結胸之證 此二證 俱是 表氣陰陽虛弱 正邪相爭 累日不決之中 裡氣亦秘澁不和而 變生此證也
- 9-36 少陰人 胃家實病 少陽人 結胸病 正邪陰陽 相敵而相格 故 日久而後 危證始見也

[考察]

結胸證은 「傷寒論」에서 「東醫寶鑑」으로 이어지면서 陰陽, 六經論의 입장에서 보았기 때문에 藥物에 있어서 一貫性이 없고 症狀에 따라 大陷胸湯(丸), 小陷胸湯, 五苓散, 十棗湯, 三物小白散 等の 升陽, 降陰藥을 相雜하여 사용하였다. 그러나, 李濟馬는 少陽人 病理를 陰陽升降의 觀點에서 보았고, 少陽人 結胸證 역시 陰氣未降으로 이루어진 水結證으로 내려가다 막힌 陰氣가 下降하도록 해야 풀어지는데, 醫師가 도리어 承氣湯類와 같은 太陰人 裏熱病證의 下劑를 써서 막힌 것을 뚫으려고 함으로써 副作用이 나타난 것으로 보았다.(9-17 (1)) 즉, 少陽人 結胸證은 少陽傷風證이 傳變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올바르게 치료하면 結胸을 豫防할 수 있지만 小柴胡湯과 같이 升陽藥과 降陰藥이 섞인 애매한 處方을 쓰게 되면 낫지 않거나 오히려 惡化되어 결국 結胸에 이르게 된 것이다.

21) 許俊 : 前掲書, p. 396

22) 전국한의학대학교 사상의학교실 : 前掲書, pp. 465-466, 468

이는 少陽傷風證이 深化되어 前四海 中の 腹에 陰氣가 下降하지 못하고 胸膈部에 上逆하여 울결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오래 되면 危證이 될 수 있는 證이다. (脇滿→胸滿→結胸으로 發展)(9-8) 또, 少陽人의 結胸證과 少陰人의 胃家實증은 모두 正邪陰陽이 서로 相對가 되는 것으로 오래되면 危證이 되는 것으로 보았다(9-19, 9-36).

結胸證 중에서 小結胸, 水結胸은 裏氣가 輕하게 不和되는 重證과 大結胸과 같이 裏氣가 重하게 秘澁 不和하는 重證중 險證의 差異를 두었다(9-17). 여기에서 李濟馬가 結胸證을 少陽人證으로 本 根據를 다음과 같이 推論할 수 있다. 結胸證은 水氣와 熱邪가 中上焦인 胸膈部에 阻滯되어 나타나는 症狀으로 甘遂에 의해서만 풀릴 수 있으며 太陰人의 裏熱證인 葛根解肌湯證(發熱, 頭身痛, 目疼, 鼻乾)이나 承氣湯證(太陰人 便秘證)과는 差異가 있다. 少陽人은 陰氣가 못내려 가고 中上焦에 悶친 때문에 胸膈部에 症狀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少陰人이라면 陽氣가 못 올라가고 下焦에 悶친 때문에 小腹硬滿證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李濟馬가 바라본 結胸證의 輕重과 治療 原則을 살펴보면 大陷胸湯(小陷胸湯)→五苓散→十棗湯 順으로 重證으로 判定하였음을 알 수 있다. 表로 定理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2〉 (條文9-17)

凡結胸 無非險證	先用甘遂 仍 荊防導赤散(以壓之)
乾嘔短氣 藥不還吐者	不用甘遂 但 荊防導赤散(加茯苓 澤瀉 各一錢)
燥渴譫語者 尤極險證	急用甘遂 仍 地黃白虎湯(以壓之) 連日服 地黃白虎湯

3) 亡陰證

(1) 既存醫學에서 본 亡陽, 亡陰證²³⁾

① 傷寒²⁴⁾

290 病人脈陰陽俱緊 反汗出者 亡陽也 此屬少陰 法當咽痛而復吐利

293 少陰病 脈微 不可發汗 亡陽故也 陽已虛 尺脈弱澁者 復不可下之

② 東醫寶鑑

大汗傷氣 大下傷血

「得效方」

③ 醫學入門

凡發汗不止 謂之亡陽 又汗不得出 亦謂之亡陽... 凡發汗過多則 陽虛不固 汗出多則 津液亡而 小便難 曰 亡陽 太陽發汗過多也. 火邪者 或 不當汗而 用火取汗 或 汗不得 飴 用火却奪 以致火氣熏蒸... 體虛者 隨漏不止 眞陽脫亡 凡汗不得者 謂之亡陽 汗多不止者 亦謂之亡陽...

④ 醫學原流論 [亡陰 亡陽論]

經云 脫血者無汗 脫汗者無血 血屬陰 是 汗多乃 亡陰也 故止汗之法 必用涼心斂肺之藥 何也? 心主血 汗爲 心之液 故常清心火 汗必從皮毛出 肺主皮毛 故 又當斂肺氣 此正治也

〔考察〕

既存醫學에서 亡陰症은 亡陽症과 더불어 八綱辯證 中 陰陽失調에서 나타나는 病證으로 陰液이 暴脫한 것을 亡陰이라 하고 陽氣가 暴脫된 것을 亡陽이라 했다. “汗多亡陽 下多亡陰”說이 가장 有力하지만 그 原出典을 찾을 수가 없다. 「傷寒論」에서는 亡陰에 대해서 언급된 바가 없고 但只 亡陽이란 脫氣현상으로 過多汗出에 의해 이루어짐을 밝히고 있다.(290, 293) 또, 亡陽證은 汗出 뿐만 아니라 下法에도 關係

23) 金龍國 : 亡陽, 亡陰證에 대한 證治醫學과 四象醫學의 比較 考察, 四象醫學會誌 3(1) : 81-86, 199

24) 蔡仁植 : 前揭書, p. 203, 205

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293) 이는 「得效方」에 이르러 대체로 그 뜻을 명확히 밝히고 있는데 亡陽이란 氣를 損傷하는 것이고, 亡陰이란 血을 損傷한다는 것으로 亡陽 亡陰을 氣血의 觀點에서 보았음을 알 수 있다.

『醫學入門』에서는 發汗過多로 인한 亡陽이 津液 損傷에 이를 수 있다고 언급함으로써 亡陽證이 심해지면 亡陰證에 이를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또 亡陰證의 症狀으로 小便難을 具體的으로 提示하여 體質的으로 少陽人 病證임을 나타내고 있다. 以後 『醫學原流論』에서는 血汗同源으로 亡陽과 亡陰을 같은 脈絡에서 解釋하였다. 그러나 後代에 올수록 亡陽과 亡陰을 정확히 分類해내지 못하고 亡陽은 막연히 脫氣현상으로 亡陰은 津液損傷으로 보았으며 亡陽, 亡陰症은 相互依存的인 關係로 보아 亡陰은 亡陽으로 迅速하게 轉化될 수 있고 亡陽후에도 亡陰 症狀이 쉽게 發顯될 수 있다고 하였다.²⁵⁾

(2) 東醫壽世保元에 記載된 亡陰證 관련 條文 26)

- 9-31 ...古醫 又言 汗多亡陽 下多亡陰 此言是也 何謂然耶 少陰人 雖則冷勝 然 陰盛格陽 敗陽外通則 煩然而 汗多也 此之謂 亡陽病也 少陽人 雖則熱勝 然 陽盛格陰 敗陰內通則 畏寒而 下多也 此之謂 亡陰病也 亡陽亡陰病 非用藥 必死也 不急治 必死也
- 9-32 亡陽者 陽 不上升而 反爲下降則 亡陽也 亡陰者

陰 不下降而 反爲上升則 亡陰也 陰盛格陽於上則 陽爲陰抑 不能上升於胸膈 下陷大腸而 外通膀胱故 背表煩熱而 汗出也 煩熱而 汗出者 非陽盛也 此 所謂內水外炭 陽將亡之兆也 陽盛格陰於下則 陰爲 陽壅 不能下降於膀胱 上逆背膈而 內通膈裡故 腸 胃畏寒而 泄下也 畏寒而 泄下者 非陰盛也 此 所 謂內炭外水 陰將亡之兆也

- 9-33 少陰人病 一日發汗 陽氣上升 人中穴先汗則 病必 愈也而 二日三日 汗不止 病不愈則 陽不上升而 亡 陽 無疑也 少陽人病 一日滑利 陰氣下降 手足掌心 汗則 病必愈也而 二日三日 泄不止 病不愈則 陰不 下降而 亡陰 無疑也...
- 9-34 少陰人 平居 裡煩汗多者 得病則 必成亡陽也 少陽 人 平居 表寒下多者 得病則 必成亡陰也 亡陽亡陰 人 平居 預治 補陰補陽 可也 不可 至於亡陽亡陰 得病臨危 然後 救病也
- 9-35 ... 少陽人 病愈之泄 手足掌心先汗而 一次泄津 表 氣清寧而 精神爽明 亡陰之泄 手足掌心不汗 屢次 泄利 表氣溯寒而 精神鬱冒 少陰人 亡陽病 少陽人 亡陰病 正邪陰陽 不敵而相格 故 初證 已爲陰證 繼而 因爲危證矣 蓋 亡陽亡陰 最是險證...

〔考 察〕

『東醫壽世保元』에서 李濟馬는 亡陽, 亡陰증을 각각의 體質的 特性에서 오는 體質病症의 概念으로 把握하여 陰陽升降의 失調로 보았다. 上記文句 (9-31), (9-32), (9-34)를 보면 亡陽, 亡陰에 대한 各各의 體質病理가 잘 나타나 있다. 이는 既存醫學에서 막연히 脫氣現狀을 亡陽이라 보고 津液損傷을 亡陰이라고 본것에 비해 李濟馬은 亡陽이란 올라

25) 李鳳教 等 : 韓方診斷學(上下), 서울, 成輔社, 1988, pp. 38-40

“亡陽 : 陽氣가 虛脫하여 나타나는 病理的 變化이다. 汗液이 大出하면 陽氣가 耗損되어 亡陽證이 나타난다....

亡陰 : 人體의 陰液이 極度로 喪失되어 나타나는 病變이다. 예컨대 大失血이나 嘔吐泄瀉로 인하여 脫水現狀 이 일어나는 경우 이것은 陰液이 枯渴된 것과 같은 뜻이므로亡陰 亡陽證은 相互 依存的인 關係가 있어 主次가 다를 뿐 완전히 高립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文溶典 等 : 東醫病理學(1), 慶熙大韓醫科大學 病理學敎室, 1985, p. 182

“陰液이 暴脫한 것을 亡陰이라 하며, 陽氣가 暴脫한 것을 亡陽이라 한다. 이때에는 人體의 陽氣와 陰液이 모두 損傷받게 되고陰陽은 相互 互根이므로 亡陰하게 되면 陽氣가 附依할 곳이 없어 散越하게 轉化될 수 있고 亡陽이 된후에도 往往 傷陰의 證狀이 出現하게 된다.”

26) 전국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 前掲書, pp. 467-468

가야 할 陽氣가 오르지 못하고 도리어 下降하는 것이라고 하였고, 亡陰이란 내려가야 할 陰氣가 내려가지 못하고 도리어 上升하는 것임을 明白히 밝혀 四象醫學에서는 陰陽升降의 構造속에서 少陽人과 少陰人이라는 體質의 脆弱點에 따라 나타나는 陽氣不升, 陰氣未降의 病理임을 알 수 있다. 또 亡陰證과 亡陽證은 體質의 所因에 의한 것임을 明白히 밝히고 있다.(9-34)

이를 具體的으로 살펴보면 少陰人은 陽氣不升으로 인해 汗出하는 것으로 그 程度에 따라 初, 中, 末證으로 나누되 반드시 小便量의 多少를 살펴야 한다고 하였다²⁷⁾. 少陽人은 陰氣不降으로 亡陰證에 이르게 되는데 大便秘者는 危證 身熱頭痛 兩手攣足 引飲者는 險證이라고 段階를 體質의 病症概念으로 把握하고 있다.

또한 亡陰, 亡陽證은 正邪陰陽 不適相格하여 初證에 이미 險證, 계속해서 危證으로 되니 得病前에 미리 執證하여 豫防할 것을 強調하고 있는데 少陰人은 人中의 汗出樣相으로 少陽人은 手足掌心の 汗出樣相으로 亡陰, 亡陽의 豫後를 把握할 수 있다(9-33, 9-35)고 하여 汗出의 概念을 既存醫學과 달리하고 있다.

太陰人의 경우를 비교해 보면 太陰人은 “太陰人 虛汗則 完實, 太陰人 汗液通暢 則 完實而 無病”으로 尹²⁸⁾은 “太陰人은 汗出過多 하더라도 亡陽이 잘 되지 않고, 下泄 하더라도 亡陰이 잘 되지 않는다”고 하였으며 李²⁹⁾는 “太陰人은 濕이 많으므로 땀을 흘려야 新진대사가 잘 되고 병이 생겨도 治濕을 목적으로 發汗, 利尿, 下劑를 위주로 해야 한다.”고 하여

太陰人은 亡陽, 亡陰이 잘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東醫壽世保元』에서 나온 亡陰證의 處方, 症狀 및 病理를 表로 定理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3〉 『東醫壽世保元』에서 나온 亡陰證 處方 및 症狀과 病理)

	症 狀	處 方	機 轉
熱 症	身熱 頭痛 泄瀉	豬苓車前子湯 荊防瀉白散	熱 泄
虛 症	身寒 腹痛 泄瀉	滑石苦蔞湯 荊防地黃湯	虛 泄 (陰氣 不足)

3. 少陽人 脾受寒表寒病의 主要藥材 分析

1) 羌 活

- (1) 효능: 發散風寒, 祛風濕止痛 / 辛苦溫, 腎膀胱
- (2) 주치: 散在表風邪, 利周身節痛, 排巨陽腐肉之疽, 除新舊風濕之證
- (3) 동무유고: 解腎氣之表邪而羌活優力
- (4) 역대 본초서 서술

時代·醫家	出 典	效 能·主 治
唐·蘇敬	唐本草	風
金·張元素	醫學啓源	肢節腫痛
明·李仲梓	雷公炮製藥性解	發表邪
清·張璐	本經逢源	水濕 太陽厥陰頭痛 勞力感冒
清·張德裕	本草正義	上部之風寒濕邪

27) 李乙浩, 洪淳用 : 前揭書, p. 169 「少陰人 腎受熱 表熱病論」亡陽病證 非但觀於汗也 必觀於小便多少也 若小便清利而 自汗出 則脾約病也 此險證也 小便赤澀而自汗出 則陽明病發熱汗多也 此危證也.....”

28) 尹吉榮 : 四象體質醫學論, 서울, 明齋出版社, 1986, p. 186

29) 李風效 等 : 韓方診斷學(上下), 서울, 成輔社, 1988, p. 134(上)

(5) 주요 처방

시대·醫家	出典·處方	構 成	主 治
宋	和濟局方 〔人參敗毒散〕	羌活 獨活 柴胡 前胡 茯苓 桔梗 枳殼 芍藥 人參 甘草 2.0	治傷寒時氣頭痛項強壯熱惡寒身 體煩疼及寒瘧咳嗽鼻塞聲重風痰 頭痛嘔噎寒熱并治之
元·朱震亨	丹心 〔羌活湯〕	羌活 附子炮 白朮 1.5	治風濕相搏肢體痠痛浮腫
明·虞搏	正傳 〔羌活防己湯〕	羌活 川芎 蒼朮 1.2 防己 木香 連翹 射干 白芍藥 木通 當歸尾 蘇 木 甘草 0.7	治附骨疽發於太陽厥陰太陰分者
明·虞搏	正傳 〔羌活防風湯〕	羌活 防風 川芎 白芍藥 藜本 當歸 甘草 1 地榆 細辛 0.5	治破傷風 初傳在表
明·虞搏	正傳 〔大羌活湯〕	羌活 升麻 1.5 獨活 1 蒼朮 防己 威靈仙 白朮 當歸 澤瀉 赤茯苓 甘草 0.7	治風濕相搏肢節腫痛不可屈伸
元·王好古	此事難知 〔九味羌活湯〕	羌活 防風 1.5 川芎 白芷 蒼朮 黃芩 生地黄 1.2 細辛 甘草 0.5 生薑 3片 大棗 2個 葱白 2本	不問四時，有頭骨節痛發 熱惡寒 無汗 脈浮緊
元·李杲	內外傷辨惑論 〔羌活勝濕湯〕	羌活 獨活 1.2 藜本 防風 蔓荊子 川芎 甘草 0.8 白朮 蒼朮 防己 黃芪 1	治脾胃受濕身重倦怠好臥項強似 折頂似拔上沖頭 痛及足太陽經不行
明·張信	回春 〔疎風湯〕	羌活 防風 當歸 川芎 赤茯苓 秦皮 半夏 烏藥 白芷 香附子 0.8 桂皮 細辛 甘草 0.3 薑 3片	治風中腑手足不仁
明·張信	醫鑑 〔理氣祛風散〕	羌活 獨活 枳殼 青皮 秦皮 烏藥 桔梗 南星 半夏 天麻 川芎 荊芥 防風 白芍藥 甘草 0.6	治中風口眼喎斜

〔考 察〕

羌活은 『傷寒論』이나 『金匱要略』에서는 사용되지 않고 비교적 後代에 와서야 사용된 藥物로 性이 溫하고 味가 苦辛하며, 發散風寒, 去風濕止痛하는 效能이 있어 體表에 寒邪가 凝滯되어 나타나는 感冒風寒으로 인한 惡寒發熱 頭痛 肢節疼痛 및 腰背肢節疼痛 등에 주로 사용되는 藥物이다. 羌活의 效能인식을 보면 ①風寒感冒로 인한 惡寒發熱(寒熱痛), 頭痛, 腰背脊痛(少陽人 表證) ②風濕相搏으로 인한 肢節腫痛, 浮腫 ③中風手足不仁, 口眼喎斜 ④破傷風 ⑤皮膚疾患 등 으로 ①은 『局方』, 『丹溪心法』, 『此事難知』, 『內外傷辨惑論』에서 ②는 『丹溪心法』, 『醫學正傳』에서 ③은 『醫鑑』, 『丹溪心法』 ④

⑤는, 『正傳』에서 발견된다. 上記 文獻을 살펴보면 羌活의 주된 主治證은 外感으로 인한 頭痛, 腰脊痛, 身痛 等の 病證인데 똑같은 病證을 다스리는 桂枝나 葛根 等과는 또 다른 處方의 系譜를 갖는다. 羌活이 들어간 處方은 모두 獨活, 荊芥, 防風 等の 藥材들中 하나 이상을 함께 配合한다. 이는 이들 藥材가 모두 共通된 效能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을 李濟馬는 補陰의 效能으로 보았다.³⁰⁾

羌活은 歸經이 足太陽膀胱經과 그와 表裏가 되는 足少陰腎經(膀胱經 위주)으로 認識되었다. 이는 六經辨證을 했던 歷代醫家이 經絡學的인 立場에서 보았기 때문으로 思料된다. 羌活이 苦辛之味로 氣가 強烈하여 體表部 및 體上部에 주로 效能이 발현됨을

30) 전국한의학대학교 사상의학교실 : 前掲書, p. 477 「少陽人 病證論」 荊芥 防風 羌活 獨活 俱是補陰藥...

意味한다. 그러나 陰陽氣의 升降聚散으로 病理를 分析했던 李濟馬는 『東武遺稿』에서 “腎臟의 氣運에 表邪를 풀어 주는 데 羌活이 강한 힘이 있다”고 하여 羌活이 節을 昏昏하게 하여 寒邪를 물리치며 동시에 表에 凝滯된 陰氣를 下降시키는 少陽人 藥物로 分類했다. 이러한 점에서 羌活은 膀胱의 眞陰을 大輔하는 補陰藥으로 分類³¹⁾할 수 있는 것이다.

2) 獨 活

- (1) 효능: 祛風 勝濕 散寒 止痛 / 辛苦微溫, 腎膀胱
- (2) 주치: 風寒濕痺 腰膝酸痛 手脚攣痛 慢性氣管支炎 頭痛 齒痛
- (3) 동무유고: -

(4) 역대 본초서 서술

時代·醫家	出典	主治證
漢代	名醫別錄	諸風 百節痛風無久新者
元·李杲		風寒濕痺 酸痛不仁 頭項難伸
元·王好古		腎間風邪 瀉肝氣 項強腰脊痛
明·蘭茂	滇南本草	表汗 兩脅 面寒疼痛
清·張德裕	本草正義	羌·獨二活 古皆不分。〈本經〉且謂獨活一名羌活 所以〈本經〉〈別錄〉 只有獨活而無羌活 〈綱目〉尚沿其舊。然二者 形色既異 氣味亦者濃淡之殊。 又說:羌活專主上部之風寒濕邪 濕與獨活之專身半以下者 截然分用 其功尤捷

(5) 주요 처방

時代·醫家	出典·處方	主治證
漢·張仲景	金匱(千金三黃湯)	中風手足拘攣 背節疼痛 煩熱心亂惡寒 經日不欲飲食
晉·葛洪	肘後方	風牙腫痛
唐·孫思邈	千金(獨活酒)	風痺
元·危亦林	得效(獨活寄生湯)	風傷骨經 腰痛如掣 流入脚膝 爲偏枯冷痺緩弱之患 產後腰脚攣痛
明·秦景明	證因脈治(獨活蒼朮湯)	少陰寒濕腰痛
明·秦景明	證因脈治(獨活細辛湯)	頭痛屬少陰
明·朱權	活幼心書(獨活湯)	驚癇 鶴膝 中風濕日久致腰背手足疼痛 晝輕夜重 四肢爲痺不仁

31) 전국한의학대학교 사상의학교실 : 上揭書, p. 477 「少陽人 病證論」 "... 荊防 大清胸膈散風 羌獨 大補膀胱眞陰"

[考察]

獨活은 性味が 辛溫(或은 苦辛溫)하고 去風濕, 散寒止痛하는 藥物로 羌活과 더불어 사용된다. 『本草正義』에 의하면 예전에는 羌活, 獨活을 따로 분류하지 않고 混用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後代에 羌活이 上部의 風寒濕을 치료한다면 獨活은 腰半身以下の 風濕을 주로 治하여 兩足濕痺, 腰膝酸重疼痛, 下腿屈伸不利 等の 證에 사용된다고 함으로써 羌活과 差異를 두었다. 上記文獻을 살펴보면 『名醫別錄』, 『千金方』, 『得效方』의 獨活寄生湯, 『證因脈治』의 獨活蒼朮湯과 獨活細辛湯에서 獨活이 去風濕, 散寒止痛 작용을 밝혔다. 獨活의 歸經또한 腎, 膀胱으로 羌活과 같으나 『得效方』, 『證因脈治』에서는 少陰腎經이라 하여 藥效가 주로 身體下部에 발현됨을 強調하였다. 이는 少陽人 表病에서 陰氣未降으로 인한 兩足濕痺, 腫痛 等に 陰氣를 下降시킴으로써 諸證을 治療하는 少陽人 藥物인 것이다. 李濟馬은 이러한 獨活의 特性을 把握하여 이를 羌活과 더불어 陰氣를 下降시킴으로써 膀胱의 眞陰을 大補하는 藥物로 認識한 것이다³²⁾. 그러나, 이는 순수하게 腎陰을 補하는 熟地黃, 山茱萸와는 別個로 降陰

藥이라는 점에 差異가 있다.

3) 荊芥

- (1) 효능: 發表 祛風 理血 / 辛溫, 肺肝
- (2) 주치: 感冒發熱 頭痛 咽喉腫痛 中風口噤 吐血 衄血 便血 崩漏 產後血暈 癰腫 瘡疥 癩癧
- (3) 동무유고: -
- (4) 역대 본초서 서술

時代·醫家	本草書	效能·主治
秦漢代	本經	寒熱 鼠瘻 癰癧生瘡 破結聚氣 下瘀血 除濕痺
	藥性論	治惡風賊風 偏身頑痺 心虛忘事 益力添精 避邪毒氣 除勞 通利血脈
	食性本草	血勞風氣壅滿 背脊疼痛 虛寒 筋骨煩痛 陰陽毒傷寒頭痛 頭旋目眩 手足筋急
明·蘭茂	滇南本草	荊芥穗 上清頭目諸風 止頭痛 明目 解肺肝咽喉熱痛 消風熱 通肺氣鼻竅塞閉
明·李時珍	綱目	散風熱 清頭目 利咽喉 消瘡腫 治項強 目中黑花生瘡 吐血 衄血 下血 血痢 崩中 痔漏

(5) 주요 처방

時代·醫家	出典 處方	構成	主治
元·王好古	湯液(荊芥散)	荊芥穗	血暈如神
	直旨(荊芥湯)	荊芥 薄荷 升麻 細辛 各3	風熱齒痛
元·張廷賢	回春(荊芥連翹湯)	荊芥 連翹 防風 當歸 川芎 白芍藥 柴胡 枳殼 黃芩 梔子 白芷 桔梗 各0.7 甘草0.5	兩耳腫痛由腎經有風熱
元·危亦林	得效(荊防敗毒散)	羌活 獨活 柴胡 前胡 赤茯苓 人參 枳殼 桔梗 川芎 荊芥 防風 各1 甘草0.5	溫疫 大頭瘟
元·朱震亨	丹心(荊黃湯)	大黃酒炒 荊芥穗 防風 各2	風熱眩暈
明·李樞	入門(荊黃湯)	荊芥4 大黃1	風熱結滯咽喉腫痛大便秘結

32) 31)과 相同

[考 察]

荊芥는 꿀풀과에 속한 辛溫解表藥物로 가볍고 향기가 강하여 體表를 훈훈하게 함으로써 寒邪를 몰아내 기운을 맑게 가라앉히는 작용을 한다. 『本經』과 『藥性本草』에서는 단지 風邪로 인한 寒熱, 喘斜, 麻痺證에 去風解表하는 작용이 나와있으나, 『食性本草』에서는 傷寒頭痛 頭眩目眩, 背脊疼痛 등에 사용된다고 하여 少陽人 表證인 背脊痛, 目眩症에 이용됨을 알 수 있다. 『瀕南本草』에서는 止頭痛, 明目 등 上部인 頭目部의 諸風證을 治療한다고 하고 『本草綱目』에서도 清頭目, 治項強, 利咽喉 한다고 하여 身體를 上下개념에서 볼 때 上部(中上焦)의 風寒邪를 몰아냄으로써 기운을 맑게 가라앉히는 작용을 한다고 볼 수 있다. 李濟馬는 『東醫壽世保元』 少陽人 處方解說 중에서 荊芥가 胸膈部의 風邪를 흩어뜨림으로써 氣運을 맑혀준다³³⁾고하여 少陽人 表證藥에 陰氣를 下降시키는 필수약물로 보았다. 荊芥를 少陰人 微發汗劑인 蘇葉과 비교해보면 蘇葉도 꿀풀과 辛溫解表藥物로 發汗解表의 작용은 荊芥와 같다. 그러나 蘇葉은 行氣寬中하는 작용이 있어 따뜻

한 기운으로 속을 덥혀줌으로써 少陰人 表病證에 사용되는데 反해 荊芥는 體表의 風寒邪를 몰아냄으로써 胸膈部에 滯된 氣運을 맑혀주며 陰氣가 정상적으로 下降할 수 있도록 하는 少陽人 藥物이다.

4) 防 風

- (1) 효능: 發表 祛風 勝濕 止痛 / 辛甘溫, 腎膀胱
- (2) 주치: 外感風寒 頭痛 目眩 項強 風寒濕痺 骨節酸痛 四肢攣急 破傷風
- (3) 동무유고: 解腎氣之表邪
- (4) 역대 본초서 서술

時代·醫家	本草書	主治症
秦漢代	本經	大風頭眩痛 惡風 風邪 目盲無所見 風行周身 骨節疼痛 煩滿
漢	名醫別錄	煩滿脇痛·脅風頭面去來 四肢攣急 乳乳金瘡內瘡
金·張元素	珍珠囊	身:去上風 梢:去下風
	藥類法象	治風通用 瀉肺實 散項目中滯氣 除上焦風邪
清·黃元御	長沙藥解	行經絡 遂濕淫 通關節 止疼痛 舒筋脈 仰急學 活肢節 起癱瘓 斂自汗盜汗 斷漏下崩中

(5) 주요처방

時代·醫家	出典·處方	構 成	主 治 證
宋·王懷隱	聖惠方(防風散)	防風10(20) 地龍20 漏蘆20	走轉疼痛 兩膝熱腫
宋	聖濟總錄(防風丸)	防風 蟬殼 豬牙皂莢 各15 天麻20	風痞疥癬 皮膚瘙癢 癩疹
宋·許叔微	本事(玉眞散)	天南星 防風 各等分	破傷風 打撲傷
金·李杲	蘭室秘藏(清空膏)	川芎5 柴胡7 黃連 防風 羌活 各10 炙甘草15 黃芩30	偏正頭痛 腦痛不止
金·劉完素	宣明論方 (防風通聖散)	防風 川芎 當歸 芍藥 大黃 薄荷 麻黃 連翹 芒硝 各5 石膏 桔梗 各10 滑石30 甘草20 荊芥 白朮 梔子 各0.1	筋脈拘倦 頭目昏眩 耳鳴鼻塞 口苦舌乾 咽嗆不利 胸膈痞悶 咳嘔喘滿 涕唾粘稠 腸胃燥 熱結 便尿淋閉
金·朱丹溪	丹心(玉屏風散)	防風 黃芪 各10 白朮20	自汗
明·秦景明	症因脈治(防風湯)	防風 荊芥 葛根	有汗惡風

33) 31)과 相同

[考 察]

防風은 性이 辛溫하고 味가 甘(微苦)하여 解表로 去風시키고, 去風濕하여 止痛시키는 藥物이다. 『本經』에 의하면 “大風頭眩痛, 目盲無所見, 煩滿을 治한다”고 하고 『名醫別錄』에서는 “煩滿脇痛·脅風頭面去來를 主治한다”고 했으며, 『珍珠囊』에서는 “사용부위에 따라서 體部는 去上風한다고 했다. 『藥類法象』에서는 散頭目中滯氣, 除上焦風邪한다”고 언급된 점을 미루어 볼 때 防風 또한 荊芥와 마찬가지로 辛溫한 性味로 體表의 風寒邪를 제거함으로써 人體 上部의 기운을 맑게 가라앉히는 작용을 하는 것으로 본 것이다. 주요 處方을 살펴보면 『蘭室秘藏』의 淸空膏에서 偏正頭痛, 腦痛不止에 사용된 것을 볼 때 防風이 上部의 氣運을 맑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宣明論』의 防風通聖散은 防風에 裡熱을 다스리는 藥까지 加하여 諸般 風熱證을 다스리는데 특히 頭目

昏眩, 耳鳴鼻塞, 口苦舌乾, 咽嗌不利, 胸膈痞悶을 治한다고하여 주로 人體 上部의 기운을 맑히는 防風의 작용을 엿볼 수 있다. 이에 李濟馬는 陰氣가 下降하지 못해서 發生되는 少陽人 表證에 防風이 辛溫한 性味로 體部에 滯된 風寒邪를 제거함으로써 中上焦의 기운을 맑히고 陰氣가 下降할 수 있도록 하는 藥物로 보았던 것이다. 『東武遺稿』에서 “防風은 腎臟의 氣運에 表邪를 풀어준다”³⁴⁾고 한 것이 이를 말하는 것이다.

5) 柴 胡

- (1) 효능: 和解表裏, 疏肝, 升陽 / 苦微寒, 肝膽心包三焦
- (2) 주치: 寒熱往來, 胸滿脇痛, 口苦耳聾, 頭痛目眩, 瘧疾, 下利脫肛, 月經不調, 子宮下垂
- (3) 동무유고: -

(4) 역대 본초서 서술

時代·醫家	出 典	效 能·主 治
秦漢	神農本草經	主心腹腸胃中結氣 飲食積聚 寒熱邪氣 推陳致新
漢末-失名	名醫別錄	除傷寒心下煩熱 諸痰熱結實 胸中邪逆 五臟間游氣 大腸停聚 水脹 及濕痺拘攣
	藥性論	治熱勞骨節煩疼 熱氣 肩背疼痛 宜暢血氣 勞乏羸瘦 主下氣消食 主時疾內外熱不解 單煮服
唐-孫思邈	千金方	苗汁治耳聾 灌耳中
唐-肖炳	四聲本草	主痰滿 胸脇中痞
唐-日華子	日華子本草	補五勞七傷 除煩止驚 益氣力 消痰止咳 潤心肺 添精補髓 天行溫疾 熱狂乏絕 胸脇氣滿 健忘
金-張元素	珍珠囊	去往來寒熱 臍痹 非柴胡梢子不能除
金-張元素	醫學啓源	除虛勞煩熱 解散肌熱 去早晨潮熱
明-蘭茂	滇南本草	傷寒發汗解表要藥 退六經邪熱往來 痲疹 除肝家邪熱 癆熱 行肝經逆結之氣 止左脅肝氣疼痛 治婦人血熱燒經 能調月經
明-李時珍	本草綱目	治陽氣下陷 平肝膽三焦包絡相火 及頭痛 眩暈 目昏 赤痛障翳 耳聾鳴 諸瘡 及肥氣寒熱 婦人熱入血室 經水不調 小兒痘疹餘熱 五疳羸熱

34) 李乙浩, 洪淳用 : 前掲書, p. 304 “防風 解胃氣之表邪”

(5) 주요 처방

時代·醫家	出典·處方	構 成	主 治
漢·張仲景	傷寒論(小柴胡湯)	柴胡80 黃芩 人蔘 甘草 生薑 各30 半 夏半升 大棗12枚	治傷寒五六日 中風 往來寒熱 胸脇苦滿 嘔噦不欲食 心煩喜嘔 或胸中煩而不嘔 或 渴 或腹中痛 或脇下痞鞭 或心下悸 小便 不利 或不渴 身有微熱 或咳者
宋	和劑局方(逍遙散)	柴胡 當歸 茯苓 白芍 藥 白朮 各1 甘草5 生薑 薄荷	治血虛勞倦 惡心煩熱 肢體疼痛 頭目昏重 心忪類赤 口燥咽乾 發熱盜汗 減食嗜臥 及血熱相搏 月水不調 臍腹脹痛 寒熱如瘧 又療室女血弱陰虛 營衛不和 咳嗽潮熱 肌 體羸瘦 漸成骨蒸
宋·許叔微	本事方(柴胡散)	柴胡40 甘草10	治邪入經絡 體瘦肌熱 推陳致新 解利傷寒 時疾 中喝 伏暑
宋·王衞	博濟方(柴胡散)	柴胡 鱉甲 各20 葵朮15 甘草 知母 各10 大棗	治營衛不順 體熱盜汗 筋骨疼痛 多因少力 飲食進退
宋·王懷隱	聖惠方(柴胡散)	柴胡10 甘草 決明子 車前子 羚羊角 各 5	治肝黃
南宋	小兒衛生總微論方 (柴胡黃連膏)	柴胡 胡黃連 等分	治盜汗往來寒熱
明·秦景明	症因脈治 (柴胡清肝飲)	柴胡 黃芩 山梔 青皮 白芍藥 枳殼	治肝經鬱火 內傷脇痛
明·張介賓	景岳全書 (正柴胡飲)	柴胡3 芍藥2 陳皮 1.5 防風 甘草 各1 生薑5片	治外感風寒 發熱惡寒 頭疼身痛 痰痞初起

[考 察]

柴胡가 처음 언급된 文獻은 「神農本草經」이다. 「神農本草經」에서는 柴胡가 肝, 膽經이라는 特定 歸經에 拘속되지 않고, 어떤 結滯을 풀어줌으로써 새로운 氣運이 조성될 수 있게 하는 藥物로 認識되었다. 특히, 飲食積聚로 인한 消化障礙에 사용되었다. 그러다가 張仲景의 「傷寒論」에서 少陽經의 和 解之劑로 汗, 吐, 下法을 통해 풀 수 없는 少陽經의 熱邪를 뚫어주는 藥物로 認識되었다. 以後 柴胡는 歷代醫書에서 苦, 微寒한 性味를 바탕으로 ①傷寒心 下煩熱, 胸中嘔逆 ②胸脇中痞 ③肩背疼痛 等 胸脇部 (中上焦)에 걸친 邪氣를 消散시키는 藥物로 서술되었다. 이것을 上記 文獻에서 살펴보면 ①은 「名醫 別錄」에서 ②는 「四聲本草」에서 ③은 「藥性論」

에 나와있다. 또 頭痛, 眩暈, 耳聾, 目眩, 寒熱往來 等 既存醫學에서 少陽經證 諸般 症勢에 必須 藥物로 認識되어 왔음을 「本草綱目」, 「珍珠囊」, 「千金 方」 및 柴胡가 사용된 處方에서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藥性論」, 「日華子本草」, 「醫學啓源」, 「滇南本草」에 나타난 虛勞煩熱, 五勞七傷의 主治 證은 後代에 寒熱往來의 主治가 訛傳된 것으로 熱症 이 없는 虛勞에 쓰는 것을 警戒시켰는데³⁵⁾ 이는 진 실로 옳은 것 같다. 上記 引用文句를 살펴보면 柴胡 의 主治證은 少陽人 表寒病의 陰氣未降으로 인한 寒 熱往來, 頭目眩暈, 耳聾 等に 사용되는 藥物로 既存 醫學에서 少陽經이라고 불리우는 것은 陰氣가 下降 하는 通路로 陰氣未降으로 인한 少陽人 表病證에 주 로 應用됨을 알 수있다.

35) 申佶求 : 申氏本草學, 壽文社, 1987, p. 229 <本草衍義>引用文

6) 前 胡

- (1) 효능: 宣散風熱, 下氣, 消痰 / 苦辛微寒, 肺 (2) 주치: 治風熱頭痛, 痰熱喘咳, 嘔逆, 胸膈滿悶
 (3) 동무유고: -
 (4) 역대 본초서 서술

時代·醫家	本草書	主治症
漢	名醫別錄	主療痰滿胸膈中痞 心腹結氣 風頭痛 去痰實 下氣 治傷寒寒熱 推陳致新 明目益精
	藥性論	去熱實 下氣 主時氣內外俱熱 單煮服佳
唐·日華子	日華子本草	治一切勞 下一切氣 止嗽 破癥結 開胃下食 通五臟 主霍亂轉筋 骨節煩悶 反胃 嘔逆 氣喘 安胎 小兒一切感氣
明·蘭茂	滇南本草	解散傷風傷寒 發汗要藥 止咳嗽 升降肝氣 明目退翳 出內外之痰
明·李時珍	綱目	清肺熱 化痰熱 散風邪

(5) 주요처방

時代·醫家	出典·處方	構 成	主 治 證
宋·楊士瀛	仁齋直指方 〔前胡半夏湯〕	前胡 半夏 赤茯苓 陳皮 紫蘇葉 枳殼 木香 甘草	治氣痰壅盛
明·李時珍	綱目〔前胡枳殼湯〕	前胡 枳殼 赤茯苓 大黃 甘草	痘後痰壅喘急
明·王肯堂	證治準繩〔前胡散〕	前胡 杏仁 貝母 麥門冬 桑白皮 甘草	肺熱咳嗽 痰黃稠粘 胸部滿悶

〔考 察〕

前胡는 辛味로 散하고 苦味로 降하는 성질이 있어 散風熱 降氣化痰하는 藥物이다³⁶⁾. 上記文獻을 살펴 보면 前胡는 ①下氣 ②去痰止咳 ③散風熱의 作用을 나타낸다. ①은 『名醫別錄』, 『藥性論』, 『日華子本草』에서 주로 나타나며 이로 인해 止咳, 平喘, 止嘔逆, 下食作用을 同件한다. ②는 『名醫別錄』, 『本草綱目』에서 ③은 『名醫別錄』, 『藥性論』, 『滇南本草』, 『本草綱目』에서 나타난다. 前胡가

사용된 主要處方을 살펴보면 대개 半夏, 杏仁, 貝母 등의 止咳去痰藥物과 함께 痰盛咳嗽에 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李濟馬는 『東醫壽世保元』 瀉防地黃湯 加減法에서 咳嗽에 前胡를 加해서 사용³⁷⁾ 하였고, 『思想要覽』에서도 咳嗽에 前胡地黃湯을, 喘證에 前胡地黃湯에 瓜蒌仁을 加하여 쓰는 것³⁸⁾으로 보아 前胡는 少陽人 表病에 陰氣未降으로 痰이 胸膈에 맺히고 이로 인해 기침과 천식이 있는 證에 사용되는 藥物이다.

36) 辛民教: 原色臨床本草學, 서울, 南山堂, 1986, p. 635

37) 전국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前胡書, p. 477 "...咳嗽 加前胡..."

38) 李道耕: 四象要覽, 익산, 圓佛敎出版社, 1995, p. 40

7) 生地黃

斑疹, 吐血, 衄血, 虛勞骨蒸, 咳血, 消渴, 便秘,

(1) 효능: 淸熱, 涼血, 生津 / 甘苦寒, 心肝膽

血崩

(2) 주치: 溫病傷陰, 大熱煩渴, 舌絳, 神魂,

(3) 동무유고: -

(4) 역대 본초서 서술

時代·醫家	出典	效能·主治
漢	名醫別錄	婦人崩中血不止 產後血上薄心·悶絕 傷身 胎動下血 胎不落 墮墜腕折 瘀血留血 鼻衄吐血
	藥性論	解諸熱 破血 通利月水閉絕 利水道 搗薄心腹 能消瘀血 病人虛而多熱.
唐·孟詵	食療本草	齒痛 吐血 折傷
金·張元素	醫學啓源	涼血 潤皮膚燥 去諸濕 酒浸上行
	藥類法象	涼血 補血 補腎水真陰不足
清·吳儀洛	本草從新	瀉小腸火 淸燥金 平諸血逆 消瘀通經 治吐衄崩中 腸胃如焚 傷寒瘟疫痘證 除大熱·大渴引飲 折跌折筋 利大小便

(5) 주요 처방

時代·醫家	出典·處方	構成	主治
唐·孫思邈	千金方 [犀角地黄湯]	犀角10 生地黃80 芍藥30 牡丹皮20	治傷寒及溫病應發汗而不汗之內蓄血者 及鼻衄吐血不盡 內餘瘀血 面黃大便黑 消瘀血
唐·孫思邈	千金方(地黃煎)	生地黃	補虛除熱 去癰癩持疾
唐·昝段	食醫心鏡	生地黃汁2合	治勞瘦骨蒸 日晚寒熱 咳嗽唾血
清·吳鞠通	溫病條辨(淸營湯)	犀角3 生地黃5 元蔘3 竹葉心1 麥冬3 丹蔘2 黃蓮1.5 金銀花3 蓮翹2	治暑濕脈虛夜寐不安 煩渴舌赤 時有謬語 目常開不閉
北宋	聖惠方	生地黃汁1升 川大黃10	治吐血經日
北宋	聖惠方(地黃酒)	生地黃汁 益母草汁 各半	治產後崩中 下血不止 心神煩亂
宋	聖濟總錄(地黃飲)	生地黃80 鹿角膠10	治肺損吐血不止
宋·陳自明	婦人良方(四生丸)	生荷葉 生艾葉 生柏葉 生地黃 各等分	治陽乘於陰 以致吐血 衄血

[考察]

生地黃은 體가 潤하고 多液이며, 또한 性이 寒하여 淸熱涼血, 生津의 作用을 主로하는 藥物이다. 生地黃은 『名醫別錄』에서 婦人科 血熱에 의한 崩中下血, 胎動下血, 諸般 瘀血症에 應用된 것을 비롯하여 血熱을 맑히면서 損傷된 陰液을 補하는 要藥으로 別다른 異見없이 사용되어 왔다. 그 구체적인 主治證을 살펴보면 ①折傷으로 인한 瘀血症, ②血熱性 出血(吐血, 衄血, 下血 등), ③溫病傷津液證, ④皮膚 乾燥 및 斑疹證으로 人別할 수 있다. 上記 文句에서 ①은 『藥性論』, 『食療本草』, 『本草從新』에서

②는 『名醫別錄』, 『食療本草』, 『本草從新』에서 ③은 『本草從新』에서 ④는 『醫學啓源』에서 잘 나타나있다. 그러나 크게 보면 모두 血熱이라는 前提下에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李濟馬는 『東醫詩世保元』 荊防地黃湯의 加減法에서 頭痛, 煩熱, 血證이 나타나는 者는 生地黃을 쓰라³⁹⁾고하여 그 主治證을 밝히고 있는데 여기에서 血證이란 血熱로 인해 出血되는 症狀을 말하는 것으로 思料된다. 이는 既存醫學과 一脈相通되는 것으로 生地黃은 少陽人 表病에서 裏病으로 넘어가는 科程에서부터 生成되는 血熱을 식히고, 損傷된 陰液을 補하는 涼血補陰 藥

物이다.

8) 茯 苓

- (1) 효능: 滲濕利水, 益脾和胃, 寧心安神 / 甘淡平, 心肺肺
- (2) 주치: 小便不利, 水腫脹滿, 痰飲咳逆, 嘔噦, 泄瀉, 遺精, 淋濁, 健忘, 驚悸
- (3) 동무유고: 固腎立腎

【考 察】

茯苓이 最初로 언급된 文獻은 『傷寒論』과 『金匱要略』이다. 性味が 甘淡한데 甘은 능히 和中하고 淡은 능히 滲泄하므로 利水滲濕의 효능이 있다⁴⁰⁾. 茯苓은 색깔과 부위에 따라 조금씩 主治의 差異가 있지만 甘, 淡, 平한 공통된 性味로 因하여 주로 利水滲濕藥物로 사용되었다. 『神農本草經』에서는 胸

脇逆氣, 心下結痛, 寒熱煩滿 等 주로 胸脇煩悶證에 利小便하는 作用으로 主治하였고, 『名醫別錄』에서는 腎邪를 伐한다고 하고 消渴, 淋瀝, 水腫淋結을 主治한다고하여 茯苓이 緩和利尿劑로 作用함을 밝혔다. 卽茯苓은 ①小便不利 ②水腫脹滿 ③痰飲으로 인한 胸脇煩悶, 心悸, 頭目眩暈 ④水飲으로 인한 濕邪에 주로 사용된다. ①은 『神農本草經』, 『名醫別錄』外에 『醫學啓原』, 『傷寒論』의 五苓散 等に 主로 응용되었고 ②는 『名醫別錄』, 『醫學啓原』, 『金匱要略』의 防己茯苓湯, 『不知醫必要』의 茯苓湯에서 ③은 『神農本草經』, 『藥徵』, 『金匱要略』의 苓桂出甘湯 等에서 ④는 『醫學啓原』, 張元素의 茯苓湯에 응용되었다. 李濟馬는 『東武遺稿』에서 茯苓은 腎臟의 氣運을 굳히고 바로 세우는 藥物로 분류⁴¹⁾하여 少陰人의 甘草, 太陰人의 砂糖과 같은類로 보았다. 大개 茯苓은 甘淡한 性味로 인하여 利水滲濕藥物로 分類되

(4) 역대 본초서 서술

時代·醫家	出典	效能·主治
秦漢代	神農本草經	胸脇逆氣 憂志驚邪恐悸 心下結痛 寒熱煩滿 咳逆 口焦舌乾 利小便
漢	名醫別錄	消渴 好睡 大腹 淋瀝 腹中痰水 水腫淋結 開胸膈 調臟氣 伐腎邪 長陰 益氣力 保神守中
金·成無己	傷寒明理論	滲水緩脾
金·張元素	醫學啓原	除濕 利腰膈間血 和中益氣 溺黃或赤而不利
元·王好古		瀉膀胱 益脾胃 腎積奔豚

(5) 주요처방

時代·醫家	出典·處方	構成	主治證
漢·張仲景	傷寒[五苓散]	猪苓 澤瀉 白朮 茯苓 桂枝	太陽病 發汗後 胃中乾 煩燥不得眠 小便不利 微熱消渴
漢·張仲景	金匱[防己茯苓湯]	防己 黃芪 桂枝3 茯苓6 甘草2	皮水 四肢腫 水氣在皮膚中 四肢蜚蝻動者
漢·張仲景	金匱[苓桂朮甘湯]	茯苓4 桂枝 白朮3 甘草2	心下有痰飲 胸脇支滿目眩
漢·張仲景	金匱[小半夏加茯苓湯]	半夏 生薑 茯苓	猝嘔吐 心下痞 膈間有水 眩悸
金·張完素	原病式[茯苓湯]	白朮 茯苓	濕瀉

39) 전국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 前掲書, p. 477 “頭痛煩熱 與血證者 用生地黃”

40) 辛民教 : 前掲書, p. 251

41) 李乙浩, 洪淳用 : 前掲書, p. 303 “茯苓 固腎立腎”

는데 그 主治證을 살펴보면 少陽人 表病證의 陰氣未降으로 인한 證과 一致됨을 알 수 있다. 既存醫學에서 利尿의 구체적인 效果는 水分이 아래로 下降됨에 따라서 利小便, 消腫滿할 뿐 만아니라 陰氣下降으로 인한 諸般 症狀이 개선된다고 볼 수 있다.

9) 澤 瀉

- (1) 효능: 利水, 滲濕, 泄熱 / 甘寒(苦), 腎膀胱
- (2) 주치: 小便不利, 水腫, 脹滿, 嘔吐, 瀉利, 痰飲, 脚氣, 淋病, 尿血
- (3) 동무유고: 壯腎而有外攘之力

[考 察]

澤瀉가 언급된 最古文獻은 「素問」⁴²⁾으로 酒風, 身熱, 汗出을 治하는데 澤瀉, 生朮, 藥銜을 사용하여 膀胱의 濕熱을 利하고 「金匱」에 支飲冒眩을 治하는데 澤瀉湯에 用하여 心下痰氣를 逐하고, 水蓄煩渴, 小便不利와 或은 吐瀉를 治하는 데 五苓散을 用하여 太陽邪熱을 泄하였으니 그 功이 行水에 長點이 있다⁴³⁾. 澤瀉의 性味는 甘淡으로 利水滲濕하고 性이 寒하여 能히 腎經의 火를 泄할 수 있으며 膀胱의 熱을 瀉하기 때문에 흔히 利水 去濕 泄熱의 要藥으로 응용된다.⁴⁴⁾ 上記文獻에서 살펴보면 澤瀉는 ①小便不利 ②頭暈眩冒 ③消水腫 ④止渴 등을 主治하는데 ①은 「藥性論」, 「日華子本草」, 「醫學啓原」,

(4) 역대 본초서 서술

時代·醫家	出典	效能·主治
	藥性論	腎虛精自出 五淋 利膀胱熱 宣通水道
唐·日華子	日華者本草	五勞七傷 頭旋 耳虛鳴 筋骨攣縮 通小腸 止遺瀝 尿血
金·張元素	醫學啓源	小便淋瀝 去陰間汗 去舊水 養新水 利小便 消水腫 滲泄止渴
	珍珠囊	入腎經...利小便 消腫脹
明·李時珍	本草綱目	澤瀉氣平 味甘而淡 淡能滲泄 氣味俱薄 所以利水而泄下 脾胃有濕熱 即頭重耳目昏耳鳴 澤瀉滲去其濕 即熱亦隨去 ...滲濕熱 行痰飲 止嘔吐 瀉痢 疝痛 脚氣

(5) 주요처방

時代·醫家	出典·處方	構成	主治
	素問	澤瀉1分 朮10分 藥銜5分	酒風 身熱解脞 汗出如浴 惡風少氣
漢·張仲景	金匱[澤瀉湯]	澤瀉5 白朮2	心下有支飲 人苦冒眩
唐·孫思邈	千金方	茵陳 澤瀉1 滑石0.3	濕熱黃疸 面目身黃
金·劉完素	保命集[白朮散]	白朮 澤瀉 各0.5	鼓脹水腫
宋·陳自明	婦人良方[澤瀉散]	澤瀉 桑白皮 檳榔 赤茯苓 各0.5	妊娠遍身浮腫 上氣喘急 大便不通 小便赤澀
宋	聖惠方[澤瀉散]	澤瀉 赤茯苓 木通 各1 牧丹皮 桂心 甘草 柳根白皮 白朮 各0.3	虛勞膀胱氣滯 腰中重 小便淋
明·李時珍	綱目[三白散]	澤瀉 白朮 白茯苓 各3	冒暑穢亂 小便不利 頭暈引飲

42) 楊維傑 : 前掲書, p. 351. [病能論篇第四十六] "...病名曰酒風 帝曰: 治之奈何 岐伯曰: 以澤瀉 朮各十分 藥銜五分 合以三指撮爲後飯 所謂深之細者 其中手如針也 摩之切之..."

43) 申佶求 : 前掲書, p. 368

「珍珠囊」, 「婦人良方」의 澤瀉散, 「聖惠方」의 澤瀉散, 「本草綱目」의 三白散 등에서 두루 나와있고 ②는 「日華子本草」, 「金匱」의 澤瀉湯, 「本草綱目」의 三白散에서 ③은 「醫學啓原」, 「珍珠囊」, 「保命集」의 白朮散, 「婦人良方」의 澤瀉散 등에서 ④는 「醫學啓原」, 「本草綱目」의 三白散에서 잘 나타나 있다. 茯苓과 비교해 보면 澤瀉는 歸經이 腎, 膀胱이며 性이 寒하여 利水作用(水氣를 下降시키는 作用)이 더 強하다고 하겠다. 李濟馬는 「東武遺稿」에서 “壯腎而有外攘之力”이라 하였는데 이는 少陽人에게 利水作用으로 陰氣를 下降시키는 作用이 強하여 陰氣未降의 原因이 되는 外部邪氣에 拘碍되지 않음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10) 猪 苓

- (1) 효능: 利尿滲濕 / 甘平, 腎膀胱
- (2) 주치: 小便不利 水腫脹滿 脚氣 泄瀉 淋濁帶下
- (3) 동무유고: 滲腎之穢氣
- (4) 역대 본초서 서술

時代·醫家	本 草 書	效 能 · 主 治
秦漢代	本經	治痲瘡 利水道
	藥性論	解傷寒溫疫大熱 發汗 主腫脹 滿腹急痛
金·張元素	醫學啓原	大燥除濕
明·李時珍	綱目	開腠理 治淋 腫 脚氣 白濁 帶下 妊娠子淋 小便不利

(5) 주요처방

時代·醫家	出典·處方	構 成	主 治
	(猪苓散)	白朮 白茯苓 各2 猪苓3	煩渴 欲飲水 嘔吐

	(五苓散)	澤瀉 赤茯苓 白朮 猪苓 各1.5 肉桂0.5	太陽入裏 煩渴 小便不利
	新方八陳 (大分清飲)	茯苓 澤瀉 木通 各3錢 猪苓 梔子 枳殼 車前子 各 1錢	積熱閉結 小便不利 或腰腹下 部急痛 或濕熱下痢 黃疸溺血 邪熱蓄血 腹痛淋閉等

[考 察]

猪苓은 性味が 甘淡하고 平하여 滲濕利水 藥物로 利水作用이 顯著하며 水濕을 分離하는 效能이 茯苓 보다 優秀하다. 上記 文獻들을 살펴보면 共通的으로 小便不利證에 쓰였고 「本草綱目」에서는 水濕代謝 障礙로 인한 淋 腫, 脚氣, 白濁, 帶下, 妊娠子淋에도 응용함으로써 그 運用의 幅을 넓혔다. 猪苓은 小便 不利의 證에는 茯苓, 澤瀉 등의 藥物과 配合하여 응용하고, 모든 水濕停滯로 인한 水腫, 濕熱로 인한 帶下, 濕濁으로 인한 淋痛, 濕熱로 인한 泄瀉 등의 證에는 모두 利水滲濕, 清熱燥濕의 藥物과 배합하여 응용하였는데 上記 文獻에서는 「傷寒論」의 五苓散, 猪苓湯, 「新方八進」의 大分清飲 등에서 그 例를 찾아볼 수 있다. 李濟馬는 猪苓을 猪苓車前子湯에서 知母, 石膏와 함께 사용하면서 少陽人 亡陰病 身熱 泄瀉 陽明證 三陽合病證을 다스렸는데 이는 李濟馬가 猪苓湯證의 渴飲飲水 小便不利 또한 陰陽升降의 원칙에서 보면 陰氣枯渴로 水氣下降이 안되기 때문으로 少陽人 亡陰證으로 인식한 것임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 즉 利水가 안되는 이유를 少陽人의 체질적 특성으로 인하여 陰氣下降이 안되기 때문이며 그 治療에 있어서 猪苓은 茯苓에 비해 作用이 더 強하며 보다 熱症에 사용된 것으로 思料된다.

11) 車前子

- (1) 효능: 利水 清熱 明目 祛痰 / 甘寒, 肺肝腎小腸
- (2) 주치: 小便不通 淋濁 帶下 尿血 暑濕瀉痢 咳嗽多痰 濕痺 目赤障翳
- (3) 동무유고: -

[考 察]

車前子는 性味가 甘寒한 強力한 利水之劑로 ①濕熱下注로 인한 小便不利, 淋瀝澀痛 등의 證 ②利水作用으로 腸内の 汚濁을 分離시켜 止瀉作用 ③清肝

熱하여 明目作用을 갖는다. ①은 「本經」을 비롯하여 上記 거의 모든 文獻에 引用되었고 ②는 「滇南本草」, 「綱目」, 「雷公炮製藥性解」에서 ③은 「別錄」, 「藥性論」, 「局方」의 駐景丸, 「聖惠方」, 「得效方」의 車前散에서 그 응용을 찾아 볼 수 있다. 李濟馬는 豬苓과 더불어 豬苓車前子湯에서 水氣를 下降시키는 強力한 利水之劑로 熱症이 나타나는 경우에 사용하였다.

(4) 역대 본초서 서술

時代·醫家	出 典	效 能 · 主 治
秦漢代	本經	主氣癰(氣淋) 止痛 利水道小便 除濕痺
漢	別錄	男子傷中 女子淋瀝 不欲食 養肺強陰益精 明目療赤痛
	藥性論	能去風毒 肝中風熱 毒風沖眼目 赤痛障翳 腦痛淚出 去心胸煩熱
唐·日華子	日華子本草	通小便淋瀝 壯陽 治脫精 心煩 下氣
金·張元素	醫學啓源	主小便不通 導小腸中熱
明·蘭茂	滇南本草	消上焦火熱 止水瀉
明·李時珍	綱目	止暑濕瀉痢
明·李仲梓	雷公炮製藥性解	主淋瀝癰閉 陰莖腫痛 濕瘡 泄瀉 赤白帶濁 血閉難產

(5) 주요처방

時代·醫家	出典·處方	構 成	主 治
隋·梅文梅	梅師集驗方	車前子5 葵根	治妊娠患淋 小便澀水道熱 不通
宋	局方(駐景丸)	車前子 熟地黃3 菟絲子5	治肝腎虛 眼昏生翳 視物不明 迎風流淚
宋	局方(八正散)	車前子 瞿脈 萹蓄 滑石 山梔子仁 甘草 木通 大黃	治小便赤澀 或癃閉不通 及熱淋血淋
宋·王懷隱	聖惠方	菟絲子5 車前子1 熟地黃3	治肝腎俱虛 眼常昏暗
宋·楊倓	楊氏家藏方(車前子散)	車前子 白茯苓 木猪苓 人參 香油	治小兒伏暑吐瀉 煩渴引飲 小便不通
元·危亦林	得效(車前散)	車前子 甘菊 白茯苓 羌活 草決明 黃芩 草龍膽 甘草 各等分	治肝經熱毒逆順生翳 血滯障人 羞明多淚
明·朱橚	普濟方	車前子曬乾爲末	治小便血淋作痛

12) 熟地黄

- (1) 효능: 滋陰 補血 / 甘微溫, 心肝腎
 (2) 주치: 陰虛血少 腰膝痠弱 腦愈骨蒸 遺精 崩漏
 月經不調 消渴 溲數 耳鳴 目昏
 (3) 동무유고: 補腎和腎

〔考察〕

熟地黄은 地黄의 根莖을 黃酒에 拌하여 九蒸九晒한 藥物로 性味가 甘, 微溫하며 肝腎 2經으로 들어가 補血, 滋陰의 效果를 발휘한다. 歷代 本草書를 살펴보면 張元素는 補腎藥으로 血衰者에게 사용한다고 하고, 李杲는 能히 腎中元氣를 補할 수 있다고 했다.

「綱目」에 能補精血, 填骨髓한다고 하고, 「藥品化義」에는 補腎水라하여 熟地黄이 人체에 陰을 補하는데 根本的인 作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熟地黄이 사용된 主要 處方을 살펴보면 이를 더욱 명확히 알 수 있는데 六味地黄湯에서 主藥으로 사용되어 腎水不足을 다스리고 大營煎에서 眞陰虧損을 治한다. 補中益氣湯에서 黃芪를 빼고 熟地黄을 主藥으로 대치한 補陰益氣煎이 陰虛에 사용된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以上에서와 같이 熟地黄은 腎陰을 補함으로써 陰虛하기 쉬운 少陽人 虛症에 응용될 수 있다. 李濟馬는 「東武遺稿」에서 “補腎和腎”한다고하여 山茱萸와 더불어 少陽人 虛症에 腎陰을 補하는 필수약물로 사용하였다.

(4) 역대 본초서 서술

時代·醫家	本草書	效能·主治
金·張元素		補腎 血衰者須用之 又臍下痛 屬腎經 非熟地黄不能除 乃通腎之藥也
元·李杲		脈虛 則宜熟地黄 地黄假火力蒸 故能補腎中元氣
明·李時珍	綱目	能補精血 用麥門冬引入所補之處... 補血而痰飲多者服之恐泥膈... 薑汁炒則不泥膈
明·倪朱謨	本草匯言	久病陰傷 新產血敗 在所必需者也
	藥品化義	專入肝臟補血 補腎水... 內傷不足 苦志勞神 憂患傷血 縱欲耗精 調經胎產 皆宜用此
	本草正義	補中補血良劑

(5) 주요처방

時代·醫家	出典·處方	構成	主治
	[六味地黄湯]	熟地黄4 山藥 山茱萸 各2 白茯苓 牡丹皮 澤瀉 各1.5	腎水不足
	[右歸陰]	熟地黄2-3 山藥 枸杞子 杜沖 各2 山茱萸 附子炮 肉桂 甘草炙 各1	陽衰陰勝
	[大營煎]	熟地黄3-7 當歸2-5 枸杞子 杜沖 各2 牛膝1.5 肉桂1-2 甘草炙1-2	眞陰虧損 經遲血少筋骨心腹疼痛
	[金水六君煎]	熟地黄3-5 當歸 半夏 白茯苓 各2 陳皮1.5 甘草1 白芥子0.7 薑5	肺腎虛寒 水泛爲痰 咳嗽喘急
	[補陰益氣湯]	熟地黄3-5 人蔘 山藥酒炒 各2 當歸 陳皮 甘草 各1 升麻0.3-0.5 柴胡1-2 薑5	陰虛 外感寒熱 痰積秘結

13) 山茱萸

- (1) 효능: 補肝腎 澁精氣 固虛脫 / 酸澁微溫, 肝腎
- (2) 주치: 腰膝酸痛 眩暈 耳鳴 陽痿 遺精 小便頻數 肝虛寒熱 虛寒不止
- (3) 동의유고: 健腎直腎
- (4) 역대 본초서 서술

時代·醫家	本草書	效能·主治
	藥性本草	療耳鳴 補腎氣 興陽道 堅陰莖 添精髓 止老人尿不絕
明·賈九如	藥品化義	滋陰益血 主治目昏耳鳴 口苦舌乾 面青色脫 汗出振寒
	本草新編	五更泄瀉
	衷中參西錄	山茱萸味酸性溫 大能收斂元氣 振作精神 固澁滑脫 因得木氣最厚 收澁之中兼具條暢之性 故又通利九竅 疏通血脈 治肝虛自汗

〔考 察〕

山茱萸는 性味が 酸溫하고 肝, 腎 2經으로 들어가 收斂作用으로 益腎固精하는 藥物이다. 『藥性本草』에서는 補腎氣 添精髓하여 療耳鳴한다고 하고 『藥品化義』에는 滋陰益血하여 目昏耳鳴을 치한다고 하였으며 『衷中參西錄』에서는 山茱萸肉은 味가 酸하고 性이 溫하여 元氣를 크게 收斂하며 精神을 振作시키고 滑脫을 固澁시킨다고 나와있다. 六味地黃湯, 左歸飲, 歸腎丸 等に 熟地黃과 함께 쓰여 酸味로 收斂시켜 腎陰을 補하는 작용을 한다. 李濟馬는 『東武遺稿』에서 山茱萸가 腎臟의 氣運을 튼튼하게 하고 빠르게 한다⁴⁵⁾고 하여 補腎和腎하는 熟地黃과 더불어 少陽人 陰虛證에 순수하게 腎陰을 補하는 藥物로 사용하였다. 이는 少陰人의 人蔘, 白朮과 같고 太陰人의 麥門冬, 五味子와 比喩될 수 있다.

(5) 주요 처방

時代·醫家	出典·處方	構 成	主 治
元·危亦林	得效(茱萸內消丸)	川鍊肉1.5 大腹皮 五味子 玄胡索 海藻各1.25 桔梗 青皮 山茱萸 各1 木香0.7 茴香 桂心 川烏炮 吳茱萸 桃仁 各0.5	陰癰偏大 腎囊腫脹
魏·吳普	華佗方(打考兎丸)	石菖蒲 山藥 牛膝 山茱萸 遠志 巴戟 續斷 五味子 茯苓 楮實子 枸杞子 熟地黃 小茴香 肉苁蓉 杜冲 等分	壯筋骨補陰陽
	驗方(歸腎丸)	熟地黃 白茯苓 牛膝 山茱萸 杜冲 當歸 枸杞子 菟絲子 等分	腎陰不足 精血虧損 身體憔悴 腰痠脚軟 遺精滑精
明·王肯堂	準繩(益智湯)	鹿茸 巴戟 肉苁蓉 附子 桂心 山茱萸 白芍藥 防風 枸杞子 牛膝 熟地黃 甘草 等分	腎經虛寒 遺精白濁 四肢煩倦

4. 少陽人 脾受寒 表寒病의 過去處方 分析

用 荊防敗毒散

1) 荊防敗毒散

(1) 大靑龍湯證

① 傷寒論⁴⁶⁾

- 39. 太陽中風 脈浮緊 發熱惡寒 身疼痛 不汗出而煩燥者 大靑龍湯主之 若脈微弱 汗出惡風者 不可服 服之即厥逆筋尺肉瞬 此爲逆也
- 40. 傷寒 脈浮緩 身不疼 但重 乍有輕時 無少陰證者 大靑龍湯發之

② 金匱要略 [痰飲咳嗽病脈證並治第十二]⁴⁷⁾

病溢飲者 常發其汗 大靑龍湯主之 小靑龍湯主之

③ 朱肱 活人書 [卷十三]⁴⁸⁾

太陽中風 脈浮緊 發熱惡寒 身疼痛 不汗出而煩燥者 大靑龍湯主之... 傷寒 脈浮緩 身不疼 但重 乍有輕時 無少陰證者 大靑龍湯發之

④ 東醫寶鑑 [雜病篇 寒 太陽形證用藥]⁴⁹⁾

善解風寒兩傷 「入門」
發熱惡風煩躁手足溫爲傷風候 脈浮緊爲傷寒脈 是傷風見寒脈也 寒多熱少 不煩躁手足微厥 爲傷寒候 脈浮緩 爲傷風脈 是傷寒 見風脈也 蓋脈似桂枝 反無汗病似麻黃 反煩躁是也 此藥能主之 「活人」
仲景治傷寒 一則桂枝 二則麻黃 三則靑龍 桂枝治傷風 麻黃治傷寒 靑龍治傷風見寒脈 傷寒見風脈 三者如鼎立子嘗深究三行 若證候與脈相對 則無不應手而愈 「本草」

⑤ 東醫壽世保元⁵⁰⁾

- 9-1 張仲景曰 太陽病 脈浮緊 發熱 惡寒 身痛 不汗出而煩躁者 大靑龍湯主之
- 9-2 論曰 發熱 惡寒 脈浮緊 身痛 不汗出而煩躁者 卽少陽人 脾受寒 表寒病也 此證 不當用 大靑龍湯 當

[考 察]

大靑龍湯은 「傷寒論」에서 처음 언급된 處方으로 表證에 땀이 없고 煩躁가 있을 때 麻黃湯에 石膏를 加한 大靑龍湯을 쓴다. 「活人書」에는 “熱이 나고 惡風 煩躁하며 手足이 溫한 것은 中風의 證候이며 脈이 浮하고 緊한 것은 傷寒脈으로서 이것이 中風에 寒脈이 나타나는 것이다.”라고 하고 大靑龍湯이 治病하는 것과 麻黃湯은 같으나 病이 沈重하고 煩躁가 더한 사람은 藥을 쓴다고 했다.

「本草」에서는 “傷寒에 風脈이 나타나거나 傷風에 寒脈이 나타나는 것을 治한다”고 하여 本 處方이 「傷寒論」以後로 風과 寒으로 크게 大別했던 外感 表證에서 煩躁證에 石膏가 들어감으로써 中風과 傷寒으로 意見이 紛紜했을뿐 別다른 意見을 提示하지 못했었다. 이에 李濟馬는 桂枝와 麻黃 中心의 概念에서 벗어나 體質病理의 立場에서 本湯證을 再定理했다. 먼저 「傷寒論」에서는 “太陽中風 脈浮太緊”이라고 했으나 李濟馬은 이 條文을 인용할 때 ‘中風’이란 말을 빼고 그냥 ‘太陽病’이라고만 引用하였다. 이는 論難의 原因이 된 ‘中風’이란 단어가 의미가 없다는 뜻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 條文의 脈과 證은 ‘煩躁’를 제외하고는 모두 傷寒(일반적 表證)이지 中風(진땀이 나는 少陰人 表證)이 아니며, 煩躁가 있으므로 麻黃湯證도 桂枝湯證도 아닌 것이다.

여기에서 李濟馬가 大靑龍湯證을 少陽人 傷風證으로 分類한 根據를 살펴보면 大靑龍湯證이 惡寒發熱

46) 蔡仁植 : 前掲書, pp. 43-47
 47) 李克光 外 : 前掲書, p. 336
 48) 朱肱 : 前掲書, p. 311
 49) 許俊 : 前掲書, p. 379
 50) 전국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 前掲書, p. 465

汗出의 少陰人 表證이 아니고 實證이되 煩躁症이 있고, 그 煩躁症이 石膏로 治療되기 때문인 것으로 思料된다. 여기에서 石膏는 胸膈熱을 겨주어 陰氣가 내려가도록 함으로써 煩躁症을 治療하는 少陽人 藥材인 것이다. 上記文句 9-2에서와 같이 李濟馬는 大靑龍湯證을 再分類하여 荊防散毒散證을 提示하였다.

(2) 小柴胡湯證

① 傷寒論⁵¹⁾

- 99 傷寒 五六日 中風 往來寒熱 胸脇苦滿 默默不欲飲食 心煩喜嘔 或胸中煩而不嘔 或渴 或腹中痛 或脇下痞鞭 或心下悸 小便不利 或不渴 身有微熱 或咳者 小柴胡湯主之
- 100 血弱氣盡 腠理開 邪氣入 與正氣相搏 結於脇下 正邪分爭 往來寒熱 休作有時 默默不欲飲食 臟腑相連 其痛必下 邪高痛下 故使嘔也 小柴胡湯主之
- 103 傷寒四五日 身熱惡風 頸項強 脇下滿 手足溫而渴者 小柴胡湯主之
- 152 婦人中風 經水適斷 七八日 續得寒熱 發作有時者 此爲熱入血室 氣血必結 故使如瘧狀 發作有時 小柴胡湯主之

② 金匱要略〔嘔吐噦下痢病脈證並治 第十七〕⁵²⁾
嘔而發熱者 小柴胡湯主之

③ 和濟局方〔券之二 治傷寒附中署〕⁵³⁾

治傷寒溫熱病 身熱惡風 頸項強急 胸滿脇痛 嘔吐煩渴 寒熱往來 身面皆黃 小便不利 大便秘澀 或過經未解 潮熱不除 及搓後勞復 發熱疼痛 婦人傷風 頭痛煩熱 經血適斷 寒熱如瘧 發作有時 ...

④ 丹溪心法〔附餘 券一〕⁵⁴⁾

傷寒四五日 寒熱往來 胸脇滿痛 或脇下痞鞭 身有微熱 或過經未解 潮熱未除 半表半裏 非汗非下之證 搓後勞復 昏沈婦人經水適斷 此爲熱入血室 故如瘧狀 產後傷寒頭痛發熱 小兒寒熱並治

⑤ 古今醫鑑〔卷三 傷寒〕⁵⁵⁾

治足少陽膽經受症 二髻脇痛 寒熱嘔而口苦 脈來弦數 屬半表半裏 宜和解 此膽經無出入 有三禁 不可汗 下 利 小便也.

⑥ 東醫寶鑑〔雜病篇 寒 少陽形證用藥〕⁵⁶⁾

治少陽病半表半裏往來寒熱能和其內熱解其外邪傷寒方之王道也... 『入門』
一名三禁湯以其禁發汗禁利小便禁利大便故只用此藥乃和解之劑也 『入門』
專治少陽半表裏證及汗下後不解過經不解時氣瘟疫熱入血室等證其間有五證尤爲的當傷寒五六日心煩喜嘔者一也寒熱往來者二也耳聾胸痞者三也發潮熱者四也差後發熱者五也此五證尤爲可服 『入門』

〔考 察〕

既存醫學에서 小柴胡湯은 少陽病의 대표적인 處方이다. 少陽病은 『內經』⁵⁷⁾에서 처음으로 언급되고 있지만, 小柴胡湯은 張仲景의 『傷寒論』에서 처음으로 언급되고 있다. 또, 柴胡湯의 모든 證은 太陽篇에서 論하였다. 「熱論」의 次序는 太陽, 陽明, 少陽으로서 太陽이 陽明으로, 陽明이 少陽으로 傳한다 하여, 『傷寒論』 역시 少陽病篇이 陽明病篇 뒤로 篇序하였으나 少陽病이 太陽에서 와서 陽明으로 傳

51) 蔡仁植 : 前掲書, pp. 80-82, 84, 114

52) 李克光 外 : 金匱要略,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9, p. 492

53) 陳師文 等 : 太平惠民和劑局方, 中國醫藥叢書, 北京, 旋風出版社, 1964, p. 1

54) 朱震亨 : 丹溪心法, 中華民國, 五洲出版社, 1970, p. 24

55) 張信 : 古今醫鑑, 江西, 江西科學技術出版社, 1990, p. 65

56) 許俊 : 前掲書, p. 382

57) 楊維傑 : 前掲書, p. 250 "... 二日陽明受之 陽明主肉 其脈俠鼻 絡於目 故身熱目痛而鼻乾 不得臥也 三日少陽受之 少陽主膽 其脈循脇絡於耳 故胸脇痛而耳聾 三陽經絡 皆受其病 而未入於臟者 故可汗而已..."

한 것이므로 柴胡諸證을 陽明病篇뒤에 篇하지 아니하고 太陽病篇에 序하여 證과 處方이 一貫되지 못한 것이다.

「熱論」에는 三陽證은 發汗시킨다고(58)하여 크게 陽證과 陰證으로 大別하여 治療(59)하였으나, 傷寒論에서는 發汗을 禁했을 뿐만 아니라 柴胡에 대한 언급이 最初로 이루어지게 된다. 60) 「傷寒論」 이후 文獻에서는 少陽證의 諸症狀과 小柴胡湯證을 少陽經에 熱邪가 鬱滯하여 나타나는 症狀으로 보았다. 이에 少陽病을 半表半裡症이라 하고 이 熱을 和解시키는 治法으로 小柴胡湯을 사용한 것으로 별다른 意見이 없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金匱要略」 역시 “嘔而發熱”이라 하여 傷寒 少陽經證을 提示했고, 「和濟局方」에서 傷寒中風의 범주가 아닌 傷寒溫熱病을 제시하여 病因보다 證의 중요성을 밝혔다. 「古今醫鑑」에서는 經絡學的으로 보다 구체화함으로써 足少陽膽經의 病證임을 언급했다. 그러나 「傷寒論」 이후 「東醫寶鑑」에 이르기까지 小柴胡湯은 少陽病證의 代表的 處方으로 인식되는데 異見이 없었음을 알 수 있다.

⑦ 東醫壽世保元(61)

- 9-6 口苦 咽乾 目眩 耳聾 胸脇滿 或 往來寒熱而嘔 屬少陽 忌吐下 宜小柴胡湯和之
- 9-7 論曰 此證 不當用 小柴胡湯 當用 荊防敗毒散 荊防瀉白散 荊防導赤散...
- 9-8 ...古人之於此證 用汗吐下三法則 輒生譏語壞證 病

益危險故 仲景變通之而 用小柴胡湯 清痰燥痰 溫冷相雜 平均和解 欲其病不傳變而 自愈 此法 汗吐下三法 論之則 可謂近善而巧矣 然 此小柴胡湯 亦非平均和解不傳變之藥則 從古斯今 得此病者 眞是寒心矣 耳聾 胸脇傷風之病 豈可以小柴胡湯 擬之乎

〔考 察〕

李濟馬는 「東醫壽世保元」에서 小柴胡湯證을 少陽人의 體質病理的 特性으로 인해 발생되는 少陽傷風證으로 보고, 그 病理를 脾臟의 陰氣가 熱邪에 막혀 脘으로 내려가지 못해서 생긴다고 보았다. 그 症狀으로 口苦, 咽乾, 目眩은 陰氣未降으로 인해 나타나는 熱症이고, 胸脇滿은 陰氣가 내려가지 못해 胸脇에서 滯滯된 症狀으로 脇滿에서 胸滿으로 다시 結胸으로 점차 甚해지는 少陽人 表病證의 段階的 症狀으로 보았다.

때문에 柴胡, 黃芩으로 清痰하고 半夏, 生薑으로 燥痰시키며 溫熱藥과 清熱藥을 섞어서 和解시키는 법이 옳지 않고 降陰시키는 荊防敗毒散을 提示하고 있다. (9-8)

즉, 小柴胡湯은 汗吐下 법이 모두 마땅치 않아 仲景이 알버무린 證으로 아마도 이 때는 清熱降陰藥이 없었기때문이 아니었을까 한다. 그러나 後代에서는 이를 깨닫지 못하고 계속 小柴胡湯을 사용하다가 異信에 이르러서야 荊防敗毒散을 사용하게 된다. 李濟馬는 여기에서 小柴胡湯證이 陰氣未降으로 인한 少陽人 表病證임을 알고 그 症狀만을 取하고 治法과 處方은 다시 定義하게 된 것이다.

58) 楊維傑 : 上揭書, p. 250 “... 傷寒一日 巨陽受之 故頭項痛 腰脊強 二日陽明受之 陽明主肉 其脈俠鼻 絡於目 故身熱目痛而鼻乾 不得臥也 三日少陽受之 少陽主膽 其脈循脇絡於耳 故胸脇痛而耳聾 三陽經絡 皆受其病而未入於臟者 故可汗而已”

59) 楊維傑 : 前揭書, p. 250 “... 帝曰: 治之奈何? 岐伯曰. 治之各通其臟脈 病日衰矣 其未滿三日者 可汗而已 其滿三日者 可泄而已”

60) 蔡仁植 : 前揭書, p. 81

61) 전국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 前揭書, p. 465

(3) 敗毒散

① 朱肱 活人書 [卷十七]62)

治傷風溫疫風濕頭眩暈四肢痛 憎寒壯熱項強目睛疼尋常
風眩拘攣風痰皆服神效

② 丹溪心法 [附餘 券十一]63)

治風熱流入 大腸經下血不止
[附餘 券十二]64)

治風熱攻注 牙齒疼痛 久而不愈

③ 危亦林 世醫得效方 [卷一 集脈說 傷寒陽症]65)

治傷寒時氣 頭痛項強 發熱惡寒 肢體煩疼 咳嗽鼻塞 聲重
風痰頭痛 嘔噦寒熱

④ 古今醫鑑 [卷之十三 驚風]66)

治急驚風初期, 發熱, 手足搐搦, 眼上視等證, 并一切感冒
風寒, 頭痛發熱 咳嗽鼻塞身重, 及瘡疹欲出搯, 并宜服之

⑤ 醫學正傳 [卷之二 瘟疫]67)

敗毒散 治瘟疫 四時通用. 此藥治傷寒瘟疫, 風濕風眩, 四
肢痛, 憎寒壯熱, 項強睛疼, 不問老人, 小兒皆可服. 或岭
南烟瘴之地, 或瘟疫時行, 或人多風痰, 或處卑濕之地, 脚
氣痿弱, 此藥不可缺也...

(4) 人蔘敗毒散

① 和濟局方 [卷之二 傷寒]

治傷寒時氣, 頭痛項強, 壯熱惡寒, 身體煩疼, 及寒壅欬嗽, 鼻
塞聲重, 風痰頭痛, 嘔噦寒熱, 并治之.

② 古今醫鑑 [卷之三 傷寒]68)

治傷寒頭痛 壯熱惡風 及風痰咳嗽 鼻塞聲重. 四時瘟疫熱
毒 頭面腫痛 痢疾發熱 諸般瘡毒
柴胡 甘草 桔梗 人蔘 羌活 獨活 川芎 茯苓 枳殼 前胡
上銓 每服一兩 生薑 薄荷煎服 咳嗽 加半夏. 熱毒 加黃
蓮 黃芩 黃檗 山梔. 風熱 加荊芥 防風. 名荊防敗毒散:
消風散和合 明消風敗毒散. 酒毒 加乾葛 黃連. 瘡毒 加金
銀花 蓮翹 去人蔘 名蓮翹敗毒散.

③ 東醫寶鑑 [雜病篇 寒 傷寒治法]69)

治傷寒時氣發熱頭痛項強肢體煩疼及傷風咳嗽鼻塞聲重
「醫鑑」
加荊芥穗防風等分名曰荊防敗毒散

(5) 蓮翹敗毒散

① 古今醫鑑 [卷之十五 癰疽]70)

治癰疽發背, 疔瘡乳癰, 一切無名腫毒, 初期憎寒壯熱,
初期憎寒壯熱, 甚則頭痛拘急, 狀似傷寒.

(6) 三黃敗毒散

① 古今醫鑑 [卷之十五 楊梅瘡]71)

治天泡 楊梅等瘡

【考 察】

荊防敗毒散의 관련 最古 文獻은 「中國醫學大辭
典」에서 「增注類證活人書」로 되어있으나 「和濟
局方」의 人蔘敗毒散에서 가장 먼저 나타난다. 名稱

62) 朱肱 : 原本增注類蒸活人書, 서울, 南山堂, 1987, p. 413

63) 朱震亨 : 前揭書, p. 19

64) 朱震亨 : 上揭書, p. 22

65) 危亦林 : 世醫得效方, 欽定四庫全書 子部五 醫家類14, 서울, 大星文化史, 1995, p. 59

66) 龔信 : 前揭書, p. 354

67) 虞搏 : 醫學正傳, 서울, 成輔社, p. 54

68) 龔信 : 前揭書, p. 64

69) 許俊 : 前揭書, p. 401

70) 龔信 : 前揭書, p. 416

71) 龔信 : 上揭書, p. 431

은 人蔘敗毒散으로 되어 있으나 약물의 構成에서 主治證에 이르기까지 特別한 差異를 발견할 수가 없다. 敗毒散은 『和濟局方』에서 傷寒時氣感冒로 인한 頭痛, 項強, 惡寒發熱, 身體疼痛, 嘔噦寒熱 등 諸症狀에 사용되었으며 이는 『活人書』, 『丹溪心法』, 『得效方』, 『醫鑑』, 『正傳』에 이르기까지 處方の 特別한 構成變化 없이 傳해진다. 단지 그 主治證에 있어서 瘟疫, 風痰, 風熱, 急驚風 등에 폭넓게 응용되었다.

龔信的 『醫鑑』에서 특히 加味가 풍부해져 瘡毒에 金銀花, 蓮翹를 加한 蓮翹敗毒散, 風熱에 荊芥, 防風을 加한 荊防敗毒散, 消風散을 合한 消風敗毒散 등이 출현한 以後로 加味가 발달되면서 癰疽, 痘疹, 楊梅瘡 等에도 두루 사용되었다.

(7) 荊防敗毒散

① 醫學正傳 [卷之八 痘疹]72)

柴胡 甘草 人蔘 桔梗 川芎 茯苓 枳殼 前胡 羌活 獨活 荊芥 防風 各四分 上細切, 作一服, 水一盞, 煎七分, 溫服. 或加薄荷五汁.

② 東醫寶鑑 [雜病篇 卷之七 瘟疫 瘟疫治法]73)

治瘟疫及大頭瘟『得效』

③ 東醫壽世保元74)

9-2 論曰 發熱 惡寒 脈浮緊 身痛 不汗出而 煩躁者 卽 少陽人 脾受寒 表寒病也 此證 不當用 大青龍湯 當用 荊防敗毒散

9-7 ... 此證 不當用 小柴胡湯 當用 荊防敗毒散 荊防瀉白散 荊防導赤散

9-8 噫 後來龔信所製 荊防敗毒散 豈非 表寒病 三神山 不死藥乎 此證 清裡熱而 降表陰則 痰飲自散而 結

胸之證 預防不成也 清痰而燥痰則 無益於陰降 痰散延拖 結胸將成而 或別生奇證也

9-25 少陽人 忽然有吐者 必生奇證也 當用 荊防敗毒散 以觀動靜而 身熱 頭痛 泄瀉者 用石礬無疑 身寒 腹痛 泄瀉者 用黃連·苦參無疑

10-12 凡 少陽人 表病 有頭痛則 必用 荊防敗毒散, 裡病 有大便過一晝夜不通證則 用 白虎湯

〔考察〕

上記 文獻을 살펴보면 『東醫寶鑑』에 引用된 荊防敗毒散은 『得效方』의 敗毒散이 잘못 引用된 것임을 알 수 있다. 李濟馬가 『東醫壽世保元』에서 引用한 龔信의 荊防敗毒散은 『東醫寶鑑』에서 人蔘敗毒散의 加減으로 李濟馬가 『東醫寶鑑』을 熟讀하고 病證을 中心으로 處方을 選擇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李濟馬가 『東醫壽世保元』에서 『東醫寶鑑』을 引用하여 龔信의 敗毒散을 荊防敗毒散의 原處方으로 보았던 이유는 아마도 敗毒散이 龔信에 와서야 비로소 荊芥, 防風이 첨가됨으로써 荊防敗毒散의 형태를 갖출 수 있었기 때문으로 思料된다. 또 龔信의 蓮翹敗毒散 역시 少陽人 涼膈散火湯之材인 蓮翹가 添加됨으로써 熱邪에 의한 瘡毒을 치료한 것으로 龔信이 비록 少陽人의 體質 病理를 명확히 分類해내지는 못했지만 상당히 近接한 點을 높이 評價한 것으로 보인다.

또, 李濟馬가 敗毒散을 少陽人 傷風證의 代表的 處方으로 應用한 根據를 다음과 같이 推論할 수 있다. 첫째 敗毒散의 主治證은 感氣와 瘟疫으로 인한 頭目 眩暈...인데 外感으로 인해 나타나는 眩暈證은 傷寒 小柴胡湯證75)으로 少陽人 表寒病이다. 만약 太

72) 虞搏 : 前掲書, p. 425

73) 許俊 : 前掲書, p. 425

74) 전국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 前掲書, pp. 465-466, 470-471

75) 전국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 上掲書, p. 465, (9-3) 少陽之爲病 口苦 咽乾 目眩也

陰人の 感氣라면 項背強證과 目疼, 鼻乾의 病症을 同伴했을 것이다. 둘째는 少陽人 表病藥 전반에 들어있는 羌活, 獨活, 荊芥 防風, 柴胡, 前胡에서 구할 수 있을 것 같다.

上記 藥材 分析에서와 같이 羌活, 獨活, 荊芥, 防風은 辛溫解表藥으로 밖으로 陰氣가 胸膈에 갇히는 原因이 된 寒邪를 몰아내고, 안으로 陰虛發熱을 식혀주며 水氣를 下降시킴으로써 갇혀있던 陰氣가 下降하도록 하는 藥物이다. 李濟馬는 『醫鑑』의 荊防敗毒散에서 枳殼, 桔梗, 人蔘, 甘草, 川芎을 去하고, 少陽人 藥材인 地骨皮, 生地黃, 車前子를 넣어 虛熱을 끄고 本處方의 降陰作用을 돕고자 했던 것 같다.

少陽人 表證藥의 共通點과 差異點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羌活, 獨活, 荊芥, 防風, 柴胡, 前胡의 공통점은 모두 陰氣를 下降시킨다는 것이다. 특히 羌活, 獨活, 荊芥, 防風은 辛溫解表藥으로 少陰人 感氣藥의 主材인 藿香, 蘇葉과 比較할 수 있다. 藿香과 蘇葉은 모두 脾胃를 따뜻하게 해주는 作用이 있어 陽燬之氣가 保命之主인 少陰人 發表製로 사용된다. 여기에 反해 荊芥는 꿀풀과로 가볍고 香氣가 強하다는 점에서 蘇葉과 비슷하나, 蘇葉은 따뜻한 氣運을 퍼져나가게 하고, 荊芥는 氣運을 맑게 가라앉히게 한다. 防風, 羌活은 性이 溫한데 이는 속을 덥히는 것이 아니라 길을 훈훈하게하여 寒邪를 물리쳐서 陰氣가 내려올 수 있게 한다. 獨活은 陰氣를 다리까지 끌어내릴 수 있어 兩足濕痺를 治하는 藥材이다. 敗毒散의 處方構成의 變化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처방의 구성변화

- 和濟局方 - -羌活, 獨活, 柴胡, 前胡, 茯苓, 枳殼, 桔梗, 芎藭, 人蔘, 甘草 各2錢, 薄荷, 生薑 少許
- 朱肱의 活人書 - -羌活, 獨活, 柴胡, 前胡, 白茯苓, 枳殼, 桔梗, 芎藭, 人蔘, 甘草 各3錢, 生薑 少許
- 危亦林的得效方 - -羌活, 獨活, 柴胡, 前胡, 赤茯苓, 各4錢, 薄荷, 生薑 少許
- 龔信的 醫鑑 - -羌活, 獨活, 柴胡, 前胡, 赤茯苓, 荊芥, 防風, 枳殼, 桔梗, 川芎, 人蔘, 甘草 各1錢, 薄荷 少許
- 東醫壽世保元 - -羌活, 獨活, 柴胡, 前胡, 赤茯苓, 荊芥, 防風, 地骨皮, 生地黃, 車前子, 各1錢

2) 荊防導赤散

(1) 道赤散

① 和濟局方 [券之六 治積熱火證]

治大人小兒心經內虛 邪熱相乘 煩燥悶亂傳流下經 小便赤澀淋澀 臍下滿痛

② 丹溪心法 [附餘 券八]76)

治心虛蘊熱 小便赤澀 遂成赤濁
[附餘 券十一]77)

治心虛蘊 小便赤澀 或成淋痛

③ 東醫寶鑑 [內景篇 心 心病治法]78)

雖治心熱實小腸之藥也
[內景篇 小腸 小腸病治法]79)

治小腸熱小便不利 「錢乙」

(2) 增味導赤散

76) 朱震亨 : 前揭書, p. 11
77) 朱震亨 : 上揭書, p. 31
78) 許俊 : 前揭書, p. 141
79) 許俊 : 上揭書, p. 151

① 東醫寶鑑 (內景篇 小腸 小腸病治法)⁸⁰⁾

治血淋澀痛 「直指」

(3) 防風道赤散

① 和濟局方 (券之十 治小兒諸疾)

治小兒初驚

[考 察]

荆防導赤散의 母方은 『東醫壽世保元⁸¹⁾』에서 「萬病回春」의 導赤散으로 나와 있으나, 「方劑學辭典⁸²⁾」에 의하면 導赤散이 언급된 最初의 文獻은 「和濟局方」이다. 이는 心經熱盛으로 口渴, 面赤, 心胸煩熱, 渴欲陰冷하거나, 心移熱於小腸하여 口舌生瘡, 小便短赤 等に 사용되었다. 以後에 心經藥인가 小腸藥인가 하는 論難이 있었지만 주로 胸脇煩滿, 小便不利의 證에 사용되었다. 「直指方」에서는 黃芩, 車前子, 梔子仁, 川芎, 赤芍藥을 加味한 增味導赤散으로 淋證에 응용되었고, 「局方」에서는 防風을 加함으로써 小兒初驚에 應用하였다.

여기에서 李濟馬가 導赤散을 少陽人 處方으로 選擇한 이유는 導赤散의 主要 症狀인 胸脇煩滿은 小柴胡湯證에서 熱症이 다소 甚해진 상태로 少陽人證이며, 小便不利 또한 少陽人表證에 나타나는 主要 症狀이기 때문에 思料된다. 以後에 사용된 防風導赤散에서 加한 防風 역시 少陽人藥이며 增味導赤散에서 凉膈散의 主材인 梔子가 사용된 것은 裡熱까지 治한다는 점에서 「局方」 보다는 더욱 發展된 痕迹을 찾을 수 있다.

(4) 荆防道赤散

① 東醫壽世保元⁸³⁾

9-7 論曰 此證 不當用 小柴胡湯 當用 荆防敗毒散 荆防瀉白散 荆防導赤散

9-17...凡結胸 無非險證 ①當先用甘遂 仍煎 荆防導赤散 以壓之.

② 乾嘔 短氣而 藥不還吐者 不用甘遂 但用 荆防導赤散 加白茯苓 澤瀉 各一錢 二三服 又連日服.

③ 燥渴譫於者 尤極險證也 急用甘遂 仍煎 地黃白虎湯 三四貼 以壓之 又 連日服 地黃白虎湯.

[考 察]

本方은 荆防敗毒散에 導赤散之劑을 加味하여 이루어진 處方으로 서로 表裏關係에 있다고 할 수 있다. 荆防敗毒散이 表쪽에 기울어져 있는 것을 目標로 한다면 荆防導赤散은 邪가 裡쪽에 기울어져서 胸脇煩滿證을 나타낼 程度에 이른 것을 目標로 하는 것이다. 李濟馬는 荆防敗毒散에 導赤散의 主要藥材인 木通과 生地黃을 加하여 少陽傷風證의 胸脇煩滿, 小便不利의 證에 응용한 것이다. 木通을 사용하였다는 것은 胸脇部에 이미 火蒸之逆滯가 甚하여 小便으로 排泄시켜야만 한다는 것이고, 生地黃은 胸脇部에서 일어나는 血逆을 和하게 하는 藥이다⁸⁴⁾. 그 위에 玄蔘으로써 相火를 맑게하면서 陰을 補하게 하고 瓜蒌仁으로써 胸膈之火를 瀉함으로써 煩滿證을 제거하게 한 것이다. 즉, 荆防導赤散은 上焦에 煩熱이 심하여 煩躁증이 더한 것을 治療하기 위하여 荆防敗毒散에 生地黃을 增量하고 玄蔘, 瓜蒌仁, 木通을 加하여 만들어진 處方같다. 處方構成의 變化 및 主治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 처방의 구성변화

80) 許俊 : 上掲書, p. 151

81) 전국한의학대학교 사상의학교실 : 前掲書, p. 475 " 此方 出於興信萬病回春書中 治尿如米泔色 不過二服 愈 ... "

82) 江克明 包明憲 : 前掲書, p. 478

83) 전국한의학대학교 사상의학교실 : 前掲書, pp. 465-466

- 局方: 生乾地黄 甘草生用 木通 各等分
- 保元: 生地黄 3錢, 木通 2錢, 玄參·瓜蒌仁 各 1.5錢, 前胡·羌活·獨活·荊芥·防風 各 1錢

● 주치: 結胸, 胸膈煩熱

○ 治頭痛 胸膈煩熱者 宜用

3) 荊防瀉白散

(1) 荊防瀉白散

① 東醫壽世保元⁸⁵⁾

- 9-6 口苦 咽乾 目眩 耳聾 胸脇滿 或 往來寒熱而嘔...
- 9-7 ...此證 不當用 小柴胡湯 當用 荊防敗毒散 荊防瀉白散 荊防導赤散
- 9-11 少陽人 傷寒病 有再痛發汗...表邪深結... 無論初痛再痛三痛 用 荊防敗毒散 或 荊防瀉白散 或 荊防導赤散, 每日二貼式 至病解而用之 病解後 又用十餘貼
- 9-22 ...少陽人 身熱頭痛泄瀉者 當用 豬苓車前子湯 荊防瀉白散
- 9-25 少陽人 忽然有吐者 必生奇證也 當用 荊防敗毒散 以觀動靜而 身熱 頭痛 泄瀉者 用石膏無疑, 身寒 腹痛 泄瀉者 用黃連·苦參無疑
- 10-1 太陽病 八九日 如瘧狀 發熱惡寒 熱多寒少 脈微而惡寒者...面色 反有熱色者 未欲解也 不能得小汗出身必痒...
- 10-3 ...論曰 此證 大便 不過一晝夜而 通者 當用 荊防瀉白散 大便 過一晝夜而 不通者 當用 地黄白虎湯

○ 治頭痛 膀胱發躁者 宜用

[考察]

荊防瀉白散은 荊防敗毒散에 『傷寒論』의 白虎湯의 意味를 加하여 이루어진 處方으로 구성상 荊防敗

毒散에서 生地黄을 3錢으로 增量하고 知母, 石膏를 加한 處方이다. 少陽人 傷風證이 進行되어 이미 내부로 裡熱이 생성됨으로써 身熱 頭痛하되 大便燥結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白虎湯의 主材인 石膏와 知母를 加하여 裏熱을 풀어주는 處方이다. 處方構成을 자세히 살펴보면 生地黄을 3錢으로 增量하여 君藥으로 凉血, 補陰하고, 知母로 清熱 補陰하며, 石膏로 이미 내부에 형성되어있는 熱結을 풀어주는 것이다. 여기에 利水滲濕하여 陰氣를 下降시키는 茯苓의 用量을 增加하고, 같은 利尿劑인 澤舍를 加함으로써 水氣를 下降시키고, 敗熱을 小便으로 排泄하게 한 것이다.

李濟馬는 少陽傷風證의 處方으로 荊防敗毒散, 荊防瀉白散, 荊防導赤散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荊防敗毒散證을 기본으로 하고 熱邪에 의한 病症의 樣相에 따라서 藥物을 增量 加減함으로써 荊防導赤散과 荊防瀉白散證을 만든 것이다. 上記 條文 10-1, 10-3을 보면 『傷寒論』 桂枝麻黃各半湯證⁸⁶⁾임을 알 수 있다. 이는 小柴胡湯證이 있으면서 不嘔하고 大小便自調하여 그 當時에는 適當한 處方을 찾을 수 없어 사용된 것으로 李濟馬는 少陽人 荊防敗毒散證에서 裏熱이 뭉치기 시작함으로써 나타나는 荊防瀉白散證으로 정리한 것이다.

● 處方的 구성

生地黄 3錢, 茯苓·澤瀉 各 2錢, 石膏·知母·羌活·獨活·荊芥·防風 各 1錢

84) 韓東錫: 東醫壽世保元註釋. 서울. 誠理會出版社. 1967. p. 252

85) 전국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上揭書, pp. 465-467, 470

86) 蔡仁植: 前揭書, p. 27, 條文 24. "太陽病 得之八九日 與瘧狀 發熱 惡寒 熱多寒少 其人不嘔 清便欲自可 一日二三度發 脈微緩者 爲欲愈也 脈微而惡寒者 此陰陽俱虛 不可更發汗更下更吐也 面色反有熱色者 未欲解也 以其不能得少汗出 身必痒 宜桂枝麻黃各半湯"

4) 甘遂散

(1-1) 大陷胸湯

① 傷寒論⁸⁷⁾

141 ... 頭痛發熱 微盜汗出而反惡寒者 表未解也 醫反下之 動數變遲 膈內拒痛 胃中空虛 客氣動膈 短氣躁煩 心中懊憹 陽氣內陷 心下因鞭即爲結胸 大陷胸湯主之...

142 傷寒六七日 結胸熱實 脈沈而緊 心下痛 按之石鞭者 大陷胸湯主之

143 ...但結胸無大熱者 此爲水結在胸脇也 但頭微汗出者 大陷胸湯主之

144 太陽病 重發汗而復下之 不大便 五六日 舌上燥而渴 日晡所小有潮熱 從心下至少腹 鞭滿而痛 不可近者 大陷胸湯主之

② 活人書 [卷十三]⁸⁸⁾

...傷寒五六日嘔而發熱者柴胡湯證具而以他藥下之柴胡證仍在者復與柴胡湯此雖已下之不爲逆必蒸蒸而振却發熱汗出而解若心下滿而鞭痛者此爲結胸也此主之

③ 丹溪心法 [附餘 券一]⁸⁹⁾

治汗下之後 不大便五六日 舌乾而渴 日晡潮熱 從心至小腹 脹滿而痛不可近 脈當沈緊滑數 或但胸結則無大段熱 頭微汗出 脈沈澀者水結也

④ 東醫寶鑑 [雜病篇 寒 傷寒結胸]⁹⁰⁾

治大結胸大黃三錢芒硝二錢甘遂末五分右剉分二貼每取一貼先煎大黃至六分納硝再煎一二沸去滓納甘遂末攪服得快利止後服「仲景」

⑤ 東醫壽世保元⁹¹⁾

9-13 傷寒 表未解 醫反下之 膈內拒痛 手不可近 心下滿而 硬痛者 此爲結胸 宜 大陷胸湯

9-16 張信曰 心下硬痛 手不可近 燥渴譫語 大便實 脈沈實有力 爲大結胸 大陷胸湯下之 反加煩躁者 死

[考 察]

大陷胸湯은 「傷寒論」에서 처음 언급되는 處方으로 太陽病을 잘못 攻下시켜 表熱이 內陷하거나 太陽經에서 陽明經으로 內傳하여 陽明實熱이 內陷하여 胸中에 본래있던 水飲과 결합하여 胸膈部에 阻滯되어 나타나는 熱實結胸證에 사용된다. 張仲景은 體質의인 差異를 알지 못하고 단지 六經陰陽論의인 입장에서 胸膈部에 水飲과 熱이 互結되어 形成된 것만 알았다. 그래서 치료약물로 熱을 치는 大黃, 芒硝에 逐水峻下 藥物인 甘遂를 사용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李濟馬는 少陽人 結胸證은 陰氣未降으로 이루어진 水結證인데 醫師가 도리어 承氣湯類(太陰人 裏熱病證)로 下法을 써서 부작용이 나타난 것으로 보아 體質의인 病理를 명확히 했다. 즉, 大陷胸湯의 證과 主要藥物인 甘遂를 取함으로써 少陽人 結胸證 病理의 핵심이 陰氣未降으로 인한 胸膈水結에 있음을 명확히 밝혔다.

● 처방구성의 변화

- 傷寒論 - 大黃六兩 芒硝一升 甘遂一錢
- 東醫寶鑑 - 大黃三錢 芒硝二錢 甘遂末五分

(1-2) 大陷胸丸

① 傷寒⁹²⁾

138 結胸者 項亦強 如柔治狀 下之即和 宜大陷胸丸

② 東醫寶鑑 [雜病篇 寒 傷寒結胸]⁹³⁾

治熱實結胸 「丹心」

87) 蔡仁植 : 上揭書, pp. 106-109

88) 朱肱 : 前揭書, p. 311

89) 朱震亨 : 前揭書, p. 32

90) 許俊 : 前揭書, p. 396

91) 전국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 前揭書, p. 466

[考 察]

大陷胸湯과 마찬가지로 傷寒 熱實結胸을 治하되 정도가 弱하기 때문에 甘遂를 빼고 葶藶子와 杏仁을 넣었다. 大陷胸丸證은 胸部의 硬結이 下部로 뻗어 있고 熱이 있는데 비해 大陷胸丸證은 上部로 뻗어 項強이 柔痙狀과 같고 熱이 없다⁹⁴⁾.

(1-3) 小陷胸湯

① 傷寒⁹⁵⁾

145 小結胸病 正在心下 按之即痛 脈浮滑者 小陷胸湯主之

② 古今醫鑑 [卷三 傷寒]⁹⁶⁾

治小結胸 心下痞滿而連 按之則痛

③ 東醫寶鑑 [雜病篇 寒 傷寒結胸]⁹⁷⁾

治小結胸 「仲景」

④ 東醫壽世保元⁹⁸⁾

9-16 ... 小結胸 正在心下 按之則痛 宜小陷胸湯

[考 察]

小陷胸湯 역시 熱實結胸에 쓰이는 處方으로 大結胸證에 비해 緩慢한 輕症이므로 小結胸證이라고 했다.⁹⁹⁾

그래서 藥物 또한 峻下逐水 藥物인 甘遂를 쓰지않고 黃連, 半夏, 瓜蒌實을 사용했다. 이에 李濟馬는

少陽人 結胸證의 程度를 再分類했다. 이것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藥을 吐하지않으면 → 利水藥(茯苓, 澤瀉)만으로 나올 證 -乾嘔短氣, 藥不還吐
藥을 吐하면(水逆證) → 逐水藥(甘遂)을 써야 나올 證 -隔內拒痛, 燥渴譫語
便秘가 있으면 → 地黃白虎湯

여기에서 輕症에 사용되는 導赤降氣湯에 瓜蒌仁이 前胡와 함께 사용되어 胸膈間의 痰熱을 치는 부분이 같지만 근본적으로 小陷胸湯證은 結胸의 輕症이라는 線上에서 考慮되었을 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思料된다.

● 처방구성의 변화

- 傷寒論 - 黃連一兩 半夏半升 瓜蒌實一枚
- 古今醫鑑 - 黃連二錢 半夏五錢 瓜蒌仁三錢 生薑三片
- 東醫寶鑑 - 半夏製五錢 黃連二錢半 瓜蒌大者 四分之一

(2) 十棗湯

① 傷寒¹⁰⁰⁾

160 太陽中風 下利嘔逆 表解者 內可攻之 其人 漿漿汗出 發作有時 頭痛 心下痞鞭滿 因脇下痛 乾嘔短氣 汗出不惡寒汗者 此表解裡未和也 十棗湯主之

92) 蔡仁植 : 前掲書, p. 105

93) 許俊 : 前掲書, p. 396

94) 蔡仁植 : 前掲書, p. 105

95) 蔡仁植 : 上掲書, p. 109

96) 飛信 : 前掲書, p. 70

97) 許俊 : 前掲書, p. 396

98) 전국한의학과대학 사상의학교실 : 前掲書, p. 466

99) 蔡仁植 : 前掲書, p. 109

100) 蔡仁植 : 上掲書, pp. 120-121

② 金匱要略 [痰飲咳嗽病脈證並治第十二]101)

脈沈而弦者 懸飲內痛 病懸陰者 十棗湯主之

③ 醫學綱目 [少陽病 脇滿痛]

太陽中風 下利嘔逆 表解者 乃可攻之. 其人繁繁汗出發作 有時 頭痛 心下痞硬滿 引脇下痛 乾嘔短氣 汗出不惡寒者 此表解裏未和也 十棗湯主之

④ 東醫寶鑑 [雜病篇 寒 少陽形證用藥]102)

治傷寒有懸飲伏飲脇下引痛芫花微炒甘遂大戟炒右等分爲末別取大棗十枚水一盞煎至半盞去棗調藥末強人一錢弱人半錢服大便利下水以粥補之 「入門」
河間曰芫花之辛以散飲二物之苦以泄水甘遂直達水氣所結之處乃泄水之聖藥然有毒不可輕用 「宣明」

⑤ 東醫壽世保元103)

9-15 杜壬曰 裏未和者 蒸 痰與燥氣 壅於中焦故 頭痛 乾嘔 汗出 痰隔也 非十棗湯 不治 (杜壬)

9-17 ... 魏信所論 燥渴證語 煩躁死者 若 十棗湯下後 因以論語證治之 連用白虎湯則 煩躁者 必無不治之理

[考 察]

十棗湯은 水飲이 胸脇部에 저체되어 나타나는 表解裡未解한 證으로 『傷寒論』에서 언급되는 結胸證 중에서 有形의 水飲이 胸脇部에 저체되어 氣機升降不利를 일으키는 證에 사용되는 處方이다. 『傷寒論』 이후 『東醫寶鑑』에까지 處方의 構成이나 主治에는 별 변화가 없이 사용되었다. 단지 『金匱要略』에서 “懸陰”이라고 밝힘으로써 傷寒의 “表解裏未

和”에 病理를 좀더 명확히 했고 『醫學綱目』의 「少陽病脇滿痛」에서 小柴胡湯의 胸滿脇痛과 十棗湯證의 心下痞硬滿 引脇下痛을 비교하여 언급했다. 『東醫寶鑑』에서는 『傷寒論』의 文句를 引用하지 않고 『醫學入門』을 引用하여 “治傷寒有懸飲伏飲脇下引痛”이라하여 『金匱』의 이론을 따랐다.

十棗湯의 處方構成을 살펴보면 苦寒有毒한 甘遂, 大戟과 辛溫有毒한 芫花로 峻下逐飲, 消滿散結시키되 大棗으로써 補脾胃, 解毒하여 그 부작용을 막고자한 것이며 頭痛, 汗出의 外感 中風의 類似證이 있으나 이는 水飲으로 인한 것이다.

(3-1) 五苓散

① 傷寒104)

72 ... 若脈浮 小便不利 微熱消渴者 五苓散主之

73 發汗已 脈浮數 煩渴者 五苓散主之

74 傷寒 汗出而渴者 五苓散主之 不渴者 茯苓甘草湯主之

75 中風 發熱六七日 不解而煩 有表裡證 渴欲飲水 水入即吐者 名爲水逆 五苓散主之

② 金匱要略. [痰飲咳嗽病脈證並治第十二]105)

假令瘦人 臍下有悸 吐涎沫而顛眩 此水也 五苓散主之
五苓散 治傷寒濕熱病 表裏未解 頭痛發熱 口燥咽乾 煩渴飲水 或水入即吐 或小便不利 及汗出表解 煩渴不止 又治霍亂吐利 躁渴引飲...

③ 和濟局方 [券之二]106)

治傷寒附中暑

101) 李克光 外 : 前掲書, p. 334

102) 許俊 : 前掲書, p. 382

103) 전국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 前掲書, p. 466

104) 蔡仁植 : 前掲書, pp. 66-68

105) 李克光 外 : 前掲書, p. 347

106) 陳師文 等 : 前掲書, p. 4

④ 活人書 [卷十四]107)

其人渴而口燥煩小便不利者
霍亂頭痛發熱身疼熱多飲水者並主之

⑤ 丹溪心法 [附餘 券二]108)

治內傷飲食 有壅小便赤小 大便溏泄
[附餘 券五]109)

治霍亂吐瀉 虛煩作亂
[附餘 券六]110)

治伏熱下利 分利陰陽
[附餘 券十一]111)

治伏暑 小便赤澀如淋

宣明方 [附錄 券一 三十二]112)

治傷寒中暑 大汗後 胃中乾 煩躁不得眠 脈浮 小便不利
微熱 煩渴 及表裏俱熱 飲水反吐 名曰水逆 或攻表不解
當汗而反下之 利不止 脈浮 表不解 自利 或一切留飲 不
散 水停心下 并兩感 中溼 而昏燥 霍亂吐瀉 驚風

⑥ 古今醫鑑 [卷三 中暑]113)

治中暑傷寒濕熱 表裏未解 頭疼發熱 口燥咽乾 煩渴乃飲
水不止 小便赤澀 霍亂吐瀉 心神恍惚 腹中氣塊 黃疸發渴
等症.

⑦ 東醫寶鑑 [雜病篇 火 下焦熱]114)

治太陽證入裏煩渴而小便不利...傷寒汗後亡津但渴飲水
者邪在裏也然上焦虛燥或飲水不散而反吐出爲水逆證或飲
水雖多而小便不利者皆裏熱未實不能消水故爾五苓散的藥

也 「入門」
[內景篇 大便 泄證有五]115)

有胃泄脾泄大腸泄小腸泄大瘕泄 大腸泄者食已窘迫大便色
白腸鳴切痛宜五苓散(方見寒門)

⑧ 東醫壽世保元116)

9-14 張仲景 曰 渴欲飲水 水入即吐 名曰水逆 五苓散
主之

(3-2) 加味五苓散

① 丹溪心法 [附餘 券二]

治伏暑熱 二氣及冒壅 泄瀉注下 或煩或渴 或小便不利 赤
茯苓去皮 澤瀉 豬苓去皮 白朮各一兩 官桂不見火 車前子
各半兩 右咀咬 每服四錢 水一鍾 薑五片 燈心十莖煎八分
不拘時候服

【考察】

五苓散證은 「傷寒論」에서 가장 먼저 언급되었
다. 이는 表寒邪에 의해 膀胱蓄水되어 水液代謝에
障病가 발생한 것으로서 煩渴 嘔吐 尿不利가 그 목
표이다. 體內에 停水되어서 渴하기는 하나 水入하면
拒逆하고 玄府로 外輸하지 못하여 渴이 없고 口舌로
上輸하지 못하여 渴하고 膀胱으로 下輸하지 못하여
尿不利하게 되는 것이니 水液代謝의 機能障病로 인
한 것이므로 "水逆"이라 稱한다.117) 文獻上的 내용
을 살펴보면 「傷寒論」에서 膀胱蓄水證과 水逆으로

107) 朱肱：前揭書, p. 342
108) 朱震亨：前揭書, p. 6
109) 朱震亨：上揭書, p. 13
110) 朱震亨：上揭書, p. 8
111) 朱震亨：上揭書, p. 30
112) 朱震亨：上揭書, pp. 31-32
113) 龔信：前揭書, p. 80
114) 許俊：前揭書, p. 420
115) 許俊：上揭書, p. 182
116) 전국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前揭書, p. 466
117) 許俊：前揭書, p. 68

병리기전을 밝히고, 『金匱要略』에서도 그 원인이 水液代謝 異常임을 밝히고 그 主治證에 있어서 霍亂 吐利라 하여 後代 泄瀉에 응용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五苓散의 處方構成 변화를 살펴보면 丹溪이후 桂枝의 용량이 줄고 상대적으로 茯苓, 豬苓, 澤瀉의 용량이 增加됨을 알 수 있다. 上記 文獻에서도 丹溪는 中署煩渴, 身熱頭痛 霍亂吐瀉 小便赤小證에 응용하여 少陽人 病證에 좀더 접근하였다고 할 수 있다. 특히 加味五苓散에서는 少陽人 藥物인 車前子와 燈心을 追加함으로써 前人에 비해 多少 발전된 형태를 이루었다.

여기에서 李濟馬가 五苓散證을 少陽人 病證으로 認識한 根據는 다음과 같이 推論된다. 五苓散의 主治證인 煩渴, 嘔吐, 小便不利는 陰氣未降으로 水液代謝에 異常이 생긴 明白한 少陽人 病證이다. 李濟馬는 少陽人 結胸證의 程度를 나눌 때 煩躁만 있는 大陷胸湯證 보다 水逆證이 나타나는 五苓散證을 더 重證으로 보았고 治療藥物에 있어서도 荊防導赤散에 利水之劑인 茯苓, 澤瀉를 加한 導赤降氣湯을 쓰다가 水逆證에는 甘遂를 썼던 것이다. 또 上記 文獻중에서 丹溪는 中署煩渴, 身熱頭痛 霍亂吐瀉 小便赤小證에 五苓散을 썼는데 이는 少陽人 亡陰證의 身熱, 頭痛, 泄瀉證과 一致하는 것으로 豬苓車前子湯에 微弱하나마 利水之劑가 많이 쓰였다는 점이 다소 意義가 있고, 응용방인 加味五苓散에 車前子가 추가됨으로써 少陽人 證에 接近했다고 볼 수 있다. 『活人書』에서는 多飲水에도 五苓散으로 治한다고하여 陰氣가 枯竭되면 口中에서 水氣가 마르므로 물을 많이 마시나

아래로 잘 내려오지 못하는 少陽人 消渴病證에 근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처방구성의 변화

- 傷寒論 : 桂枝半兩, 茯苓18銖, 豬苓18銖, 澤瀉1兩6銖, 白朮18銖
- 金匱要略 : 肉桂15兩, 赤茯苓15兩, 豬苓15兩, 澤瀉25兩, 白朮15兩
- 活人書 : 桂枝半兩, 茯苓3分, 豬苓3分, 澤瀉1兩1分, 白朮3分
- 丹溪心法 : 桂枝2錢半, 茯苓半兩, 豬苓半兩, 澤瀉2兩, 白朮半兩
- 古今醫鑑 : 肉桂6分, 茯苓1錢, 豬苓1錢2分, 澤瀉1錢2分, 白朮1錢
- 東醫寶鑑 : 肉桂5分, 茯苓1錢半, 豬苓1錢半, 澤瀉2錢半, 白朮1錢半
- 壽世保元 : 肉桂5分, 茯苓1錢半, 豬苓1錢半, 澤瀉2錢半, 白朮1錢半

(4-1) 甘遂散

① 東醫寶鑑 [內景篇 神 癩癩]118)

治五種癩癩及婦人心風血迷神效『得效』

[內景篇 大便 大小便不通]119)

治大小便不通赤皮甘遂二兩煉蜜二合和勻每一兩分四服日進一服蜜水調下『得效』

[外形篇 耳 透關通氣藥]120)

邪氣閉塞爲聾聰常用透關通氣之藥宜...甘遂散透耳筒透鐵關法

治耳聾甘遂末葱汁和丸綿裹塞耳口中含甘草湯兩藥須各兩處修製妙 『入門』

118) 許俊 : 上揭書, p. 99

119) 許俊 : 上揭書, p. 197

120) 許俊 : 上揭書, p. 236

② 東醫壽世保元¹²¹⁾

9-17 ...凡結胸病 皆 藥湯入口 輒還吐 惟 甘遂末 入口 口涎含下 因以溫水 漱口而下則 藥不還吐 管治結胸 用甘遂散 ...凡結胸 無非陰證 當先用 甘遂 仍煎 荊防導赤散 以壓之 乾嘔 短氣而 藥不還吐者 不用 甘遂 但用 荊防導赤散 加白茯苓 澤瀉 各一錢 ...燥渴譫於者 尤極險證也 急用 甘遂 仍煎 地黃白虎湯 三四貼 以壓之 又 連日服 地黃白虎湯 ...然 十棗陷胸 不如 單用甘遂 或用 甘遂天一丸 結胸 甘遂末 例用三分 大結胸 用五分

9-18 甘遂 表寒病 破水結之藥也 表病 可用甘遂而 不用石膏 石膏 裡熱病 通大便之藥也 裡病 可用石膏而 不可用甘遂 然 揚手擲足 引飲泄瀉證 用石膏 痺風 膝寒 大便不通證 用甘遂

(4-2) 甘遂天一丸

① 東醫壽世保元¹²²⁾

9-17 ...十棗陷胸 不如 單用甘遂 或用 甘遂天一丸...

[考 察]

本方은 少陽人 結胸證에 水入還吐하는 것을 다스리는 處方으로 傷寒結胸證, 水逆證에서 그 맥락을 찾을 수 있다. 傷寒 結胸證과 水逆證은 모두 水飲과 邪熱이 互結되어 胸膈, 胸脇部에 阻滯된 것이다. 『東醫寶鑑』에서는 痰飲이 心竅를 막아서 오는 癰癩, 大小便不通 등에 사용하였으나, 李濟馬는 오직 甘遂의 水氣가 胸膈部位에 멎은 것을 풀어주고, 輕粉이 熱邪를 씻어내리는 작용을 취하여 少陽人의 胸中에 있는 熱邪가 水氣와 멎쳐서 생긴 結胸證 제반 증상에 응용하였다. 그 응용방으로는 甘遂天一丸, 輕粉甘遂龍虎丹, 輕粉甘遂雌雄丸이 있는데 이들은 모

두 同一한 藥材로 用量만 다르다

甘遂天一丸 : 甘遂末 1錢 輕粉末1錢

輕粉甘遂龍虎丹: 甘遂 1錢 輕粉 5分

輕粉甘遂雌雄丸: 甘遂, 輕粉 各 等分 作丸

5) 地黃白虎湯

(1) 白虎湯

① 傷寒論¹²³⁾

184 傷寒 脈浮滑 此表有熱 裡有寒 白虎湯主之

229 三陽合病 腹滿 身重 難以轉側 嘔不仁而面垢 譫語 遺尿 若自汗出者 白虎湯主之 發汗即譫語 下之即額上生汗 手足厥冷

357 傷寒 脈滑而厥者 裡有熱也 白虎湯主之

② 和濟局方〔券之二 治傷寒附中署〕¹²⁴⁾

治傷寒大汗出後 表證已解 心胸大煩 渴欲飲水 及吐 或下後七八日 邪毒不解 熱結在裏 表裏俱熱 時時惡風大渴 舌上乾燥而煩 欲飲水數升者 宜服之 又治夏月中暑毒 汗出惡寒 身熱而渴

③ 活人書〔卷十四〕¹²⁵⁾

治傷寒脈浮滑者表裏有熱

又三陽合病腹滿身重難以轉側口中不仁面垢譫語遺尿發汗則譫語下之則額上生汗手足逆冷若自汗出者 傷寒脈滑而厥者裏有熱並主之

④ 丹溪心法〔附錄 券一 三十二〕¹²⁶⁾

治傷風自汗 桂枝證 表未解 半入於裏 中署自汗脈虛弱 傷寒自汗 脈滑數而實 表裏俱熱 三陽合病 腹滿 身重 口燥 面垢譫語 發黃 厥逆 自汗 和解兩感 解頭痛 止自汗 雜病 時疫煩渴 發斑 兼治小兒 痘疱 瘡疹 伏熱 『宣明方』

121) 전국한의학대학교 사상의학교실 : 前掲書, p. 466

122) 전국한의학대학교 사상의학교실 : 上掲書, p. 466

123) 蔡仁植 : 前掲書, p. 139, 166-167, 245-246

124) 陳師文 等 : 前掲書, p. 4

125) 朱肱 : 前掲書, p. 340

126) 朱震亨 : 前掲書, p. 31

⑤ 古今醫鑑 (卷三 傷寒)¹²⁷⁾
治身熱而渴 有汗不解 或經汗過 渴不解者.

⑥ 東醫寶鑑 (雜病篇 寒 陽明形證用藥)¹²⁸⁾
治陽明病汗多煩渴脈洪大 「入門」

[考 察]

白虎湯은 「傷寒論」에서 처음 언급되는 方으로 陽明經熱이 盛하여 高熱頭痛, 口乾舌燥, 煩渴引飲, 面赤惡熱, 大汗出, 舌苔黃燥, 脈洪大有力 或滑數의 證¹²⁹⁾에 쓰이는 處方이다. 傷寒條文 184에서 “裏有寒”을 “熱”의 誤字로 보면 脈浮滑은 裏熱을 반영하는 것으로 白虎湯證은 有形한 胃實證의 熱보다 無形한 散漫의 熱이므로 脈이 浮滑하다.¹³⁰⁾고 할 수 있다. 『傷寒論譯證』¹³¹⁾에 의하면 “熱邪가 外部의 皮膚로 蒸하여 自汗出하니 이것은 裡熱의 證이고, 裡實의 證이 아니기 때문에 承氣湯을 사용하지 않고 白虎湯으로 主治한다.”고 하여 「傷寒論」에서는 便秘의 有無로 承氣湯證과 白虎湯證을 구분했으며 白虎湯證에는 便秘가 없다는 것을 밝혔다.

傷寒條文 357에서 熱厥은 初, 中의 病에 반드시 身熱 頭痛하는 것 외에 또 陽證이 있고 4-5일이 지나야 비로소 厥證이 발생한다¹³²⁾고 하니 白虎湯證은 傷寒 陽明經 熱로 인하여 身熱, 頭痛, 脈實, 煩

躁를 主證으로 나타내며 承氣湯證과는 差異가 있음을 알 수 있다.

「傷寒論」以後의 醫書들을 살펴보면 石膏를 主藥으로 한 方劑의 構成에도 별다른 변화가 없고 身熱, 煩渴, 自汗, 脈實有力이라는 主治證에도 별다른 異見없이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李濟馬가 白虎湯證을 少陽人證으로 認識한 根據를 推論해 보면 다음과 같다. 위에서 언급된 主治證中에서 身熱 頭痛은 荊防瀉白散證으로 명백히 少陽人證이며 君藥인 石膏와 知母 또한 裏熱을 식힘으로써 陰氣를 下降시키고 맑히는 작용을 하니 少陽人藥이 분명하다.

즉, 「傷寒論」 白虎湯證은 外感病에 裏熱이 생기는 少陽人 특유의 體質病證으로 인하여 身熱, 頭痛, 脈實, 煩躁가 나타나는 少陽人 裏熱證이다. 이에 비해 石膏를 대폭 增量한 地黃白虎湯은 四象醫學的 觀點에서 보면 少陽人 裏熱이 甚해짐으로써 便秘가 主要症狀이 된 때에 사용된다.¹³³⁾

(2) 地黃白虎湯

① 東醫壽世保元¹³⁴⁾

9-17 ...燥渴譫語者 尤極險證也 急用 甘遂 仍煎 地黃白虎湯 三四貼 以逐之 又 連日服 地黃白虎湯 巽信所論 燥渴譫語 煩躁死者 若 十棗湯下後 因以譫語證治之 連用白虎湯則 煩躁者 必無不治之理

127) 巽信 : 前掲書, p. 68

128) 許俊 : 前掲書, p. 380

129) 江克明, 包明蕙 : 前掲書, p. 325

130) 蔡仁植 : 前掲書, p. 139

131) 蔡仁植 : 上掲書, p. 166

132) 蔡仁植 : 上掲書, p. 246

132) 蔡仁植 : 上掲書, p. 246

133) 전국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 前掲書, p. 466 (9-18) “...石膏 裏熱病 通大便之藥也...”

134) 전국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 上掲書, pp. 466-467, 470

- 9-27 少陽人 身熱頭痛 揚手擲足 引飲者 此 陰證也 雖泄瀉 必用石膏 無論泄瀉有無 當用 荊防瀉白散 加黃連 瓜藶 各一錢 或 地黃白虎湯
- 10-3 大便 過一晝夜而不通者 當用地黃白虎湯.
- 10-6 若陽明證 小便不利者 兼大便秘燥 則當用地黃白虎湯.
- 10-8 論曰 少陽人 裏熱病 地黃白虎湯 爲聖藥 而用之者 必觀於大便之通不通也 大便 一晝夜有餘而不通 則可用也 二晝夜不通 則必用.

[考 察]

地黃白虎湯의 母方은 白虎湯으로 『傷寒論』에서 가장 먼저 언급되고 있다. 本方은 기존의 白虎湯 處方에 少陰人 藥材인 甘草와 粳米를 빼고 生地黃, 獨活, 防風을 加하였는데 여기에서 石膏는 瀉熱을 시켜서 氣가 저절로 내려가게 하는 降陰作用을 하고 生地黃은 胸膈의 熱을 瀉하고 陰氣를 大補하며, 知母는 陰을 補益하고 淸熱시킨다. 또한 水氣를 내리는 작용을 함께함으로써 石膏, 生地黃, 知母는 中점적으로 胸膈의 熱을 瀉하여 풀어주며 防風이 陽邪(熱邪나 風邪)를 흩어서 陰을 길러 上焦에서 陽邪에 의해 멎쳐있던 陰氣가 下降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 준다. 獨活 역시 陰氣를 下降시킴으로써 서로 淸裡熱하게 하는 동시에 降陰시킨다.

그런데 傷寒의 白虎湯과 李濟馬의 地黃白虎湯을 比較해보면 地黃白虎湯은 大便秘結의 證이 形成된 以後에 비로소 사용됨을 알 수 있다. 즉, 傷寒의 白虎湯證은 體質의 特性을 考慮하지 않은 狀態에서 陽明經證과 腑證으로 分類한 視覺에서 만들어 졌다면 地

黃白虎湯은 石膏의 用量을 大量으로 增加시킴으로써 少陽人의 裏熱證이 甚化되어 便閉가 形成된 證으로 傷寒의 白虎湯證 中에서 大便燥結이 이미 形成된 以後의 證으로 狹小化하여 太陰人 便秘證에 쓰는 承氣湯證과 差異를 명확히 했다고 볼 수 있다.

● 처방의 구성 비교

- 白虎湯 : 石膏 5錢, 知母 2錢, 甘草7分, 粳米 半合
- 地黃白虎湯 : 石膏 5錢~1兩, 生地黃 4錢, 知母 2錢, 防風·獨活 各1錢

6) 猪苓車前子湯

(1) 猪苓湯

① 傷寒¹³⁵⁾

233 若脈浮發熱 渴欲飲水 小便不利者 猪苓湯主之

326 少陰病 下利 六七日 咳而嘔渴 心煩不得眠者 猪苓湯主之

② 金匱要略. [消渴 小便不利淋病脈證並治 第十三]¹³⁶⁾
脈浮發熱 渴欲飲水 小便不利者 猪苓湯主之

③ 東醫寶鑑 [內景篇 小便 小便不通]¹³⁷⁾

治陽明證小便不利汗少脈浮而渴 『仲景』

[雜病篇 寒 陽明形證用藥]¹³⁸⁾

治熱結小便不通 『回春』

[內景篇 腎 腎病治法]¹³⁹⁾

陽明證 小便不利 脈浮而渴者 猪苓湯 主之

135) 蔡仁植 : 前掲書, pp. 169-170, 226-227

136) 李克光 外 : 前掲書, p. 378

137) 許俊 : 前掲書, p. 170

138) 許俊 : 上掲書, p. 380

139) 許俊 : 上掲書, p. 147

140) 전국한의학대학 사상의학교실 : 前掲書, p. 470

④ 東醫壽世保元¹⁴⁰⁾

10-4 陽明證 小便不利 脈浮而渴者 猪苓湯 主之

少陽陽明證 俱有之謂也 此證 常用 猪苓湯 白虎湯 然 古方 猪苓湯 不如 新方 猪苓車前子湯之 具備.....

[考 察]

猪苓湯은 『傷寒論』에서 처음 언급된 處方으로 陽明病 脈浮發熱 渴欲飲水 小便不利를 목표로 한다. 그러나 『傷寒論·少陰病篇』에 나타난 條文 326과 같이 陽明熱이 아니라도 泄瀉를 數次한 뒤에 발생되는 水分과 熱의 結滯로 인한 咳而嘔渴 心煩不得眠 小便不利 證에도 응용된다. 이는 일반적으로 少陰病은 清瀉를 下利하고, 咳嘔하며 渴하지 아니한 證이 常例인데 도리어 裏熱에 의한 證을 나타낸다.¹⁴¹⁾ 이것을 體質醫學的 立場에서 보면 陰氣가 損傷되기 쉬운 少陽人 中에서 平素 몸이 차고 泄瀉를 잘하는 사람이라면 쉽게 亡陰證에 이르게 될 것이다. 猪苓湯證은 少陽人 亡陰證 泄瀉의 熱症을 나타내는 것으로 사람마다 체질이 서로 다름을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처방구성의 변화

傷寒論에서 猪苓 茯苓 阿膠 滑石 澤瀉 各1兩이며 以後文獻에서도 構成 및 用品에 변화가 없다.

(2) 大分清飲

[方劑大辭典]¹⁴²⁾

治積熱閉結 小便不利 或腰腹下部急痛 或濕熱下痢 黃疸 溺血 邪熱蓄血 腹痛淋閉等症方.

茯苓, 澤瀉, 木通 各3錢 猪苓, 梔子, 枳殼, 車前子 各1錢. 水煎, 食遠服 『新方八陳』

(3) 猪苓車前子湯

① 東醫壽世保元

10-6 論曰 陽明證者 但熱無寒之謂也 少陽合病者 太陽

[考 察]

本方은 利水之劑를 君藥으로 하고 知母와 石膏를 加하며 少陽人 表證藥의 基本方劑인 羌活, 獨活, 荊芥, 防風을 함께 사용하여 少陽人 亡陰證 熱症에 사용된다. 母方으로는 傷寒論의 五苓散, 猪苓湯 後代에 나오는 大分清飲을 들 수 있다. 五苓散證을 少陽人 病理에서 보면 胸膈熱이 있기 때문에 煩躁不得眠 欲得飲水하고 熱을 식히려고 물을 마시나 陰氣가 枯渴되어 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渴欲飲水 水入則吐, 小便不利하는 것이다.

猪苓湯證의 渴欲飲水 小便不利 또한 陰陽升降의 원칙에서 보면 陰氣枯渴로 水氣下降이 안되기 때문에 少陽人 亡陰證임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 藥物治療에 있어서도 利水之劑를 主로 사용한 점이 一致하는데 이는 李濟馬가 利水藥을 거의 少陽人 藥으로 분류하였기 때문으로 利水가 안되는 이유를 少陽人의 體質의 特性으로 인하여 陰氣下降이 안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 것 같다.

本方의 構成 方解를 보면 澤瀉와 茯苓은 氣운을 下降시켜 滲濕利水시키고 猪苓과 車前子는 熱로 막힌 것을 疏通시켜 水飲이 내려오도록 하니 茯苓, 澤瀉에 비해 熱을 치고 陰氣를 下降시키는 작용이 더욱 強하다고 하겠다. 즉, 利水之劑중에서 茯苓과 澤瀉가 陽的이라면 猪苓, 車前子는 陰的이라고 할 수 있다. 知母는 熱을 맑게 해주고, 腎水를 補하여 氣운을 下降시켜 주며, 石膏는 熱氣를 풀어주어 陰氣가 순조롭게 下降할 수 있도록 돕는다. 本方에서 知母와 石膏가 사용된 점은 少陽人이 利水가 안되는 原

142) 江克明 包明蕙 : 前掲書, p. 82

因이 반드시 裏熱이 있기 때문에 본 것이다.

● 처방구성의 변화와 주치증

澤瀉 茯苓 各二錢, 豬苓 車前子 各1.5錢 知母 石礬 羌活 獨活 防風 荊芥 各一錢
治頭腹痛 有泄瀉者

② 東醫寶鑑 [內景篇 腎 腎病治法]148)

治虛勞腎損
水泛爲痰之聖藥血虛發熱之神劑又能補肝蓋腎肝之病同一治故也 「回春」

7) 荊防地黃湯

(1) 八味丸

① 和濟局方 [卷之五 治虛熱 附骨蒸]143)

治腎氣乏 下元冷慙 臍腹疼痛 夜多漩溺 脚膝緩弱 肢體倦怠 面色熬黑 不思飲食 又治脚氣上衝 少腹不仁 及虛勞不足 渴欲飲水 腰重疼痛 少腹拘急 小便不利 或男子消渴 小便反多婦人轉胞 小便不通 並宜服之...久服 壯元陽 益精髓 活血駐顏強志輕身

[考察]

八味丸이 언급된 最古文獻은 「太平惠民和濟局方」이다. 「金匱要略」에는 腎氣丸만 실려있을 뿐 八味丸은 언급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金匱要略」에서 나온 八味腎氣丸이 金匱腎氣丸(崔氏八味丸)과 異名同方으로 處方 構成을 살펴보면 和濟局方の 八味丸은 乾地黃이 熟地黃으로, 桂枝가 肉桂로 代置된 點만 다를뿐 큰 變化가 없음을 알 수있다.

② 古今醫鑑 [卷之十 消渴]144)

腎氣八味丸
治心腎不交 消渴引飲

主治證을 살펴보면 「金匱要略」에서 腎陽不足으로 인한 腰痛, 小腹拘急, 小便不利, 脚氣症을 제시했고, 「和濟局方」에서도 「金匱要略」과 같되 症狀를 좀더 세분화 했다. 「方劑大辭典」에서는 「金匱要略」의 腎氣丸이 「和濟局方」의 八味丸과 같다고 보았다.149) 「東醫寶鑑」의 八味丸 역시「名曰腎氣丸」이라고하여 과거 腎氣丸과 八味丸은 같은 처방으로 볼 수 있겠다. 後代에 와서 六味地黃元이 나오면서 六味에 五味子를 加한 것도 腎氣丸이라 하니 다소 處方名이 混用된 것이라고 하겠다.

③ 東醫寶鑑 [內景篇 腎 腎病治法]145)

治命門火不足陽虛 名曰腎氣丸「仲景」
又治老年水火俱虧腎氣虛乏下元冷慙腰痛脚軟夜多漩尿面黑口乾耳焦枯「入門」

(2) 腎氣丸

① 金匱要略. [血痺虛勞病脈證 並治第六]146)

虛勞腰痛 小腹拘急 小便不利者 八味腎氣丸主之
〔中風歷節病脈證並治第五〕147) →

崔氏八味丸(金匱腎氣丸)
治脚氣上引 小腹不仁(=張仲景의 八味腎氣丸)

● 처방구성의 변화

• 和濟局方 [八味丸] 熟地黃 8兩 山茱萸 山藥 各

143) 陳師文 等 : 前掲書, p. 2

144) 張信 : 前掲書, p. 292

145) 許俊 : 前掲書, p. 147

146) 李克光 外 : 前掲書, p. 166

147) 李克光 外 : 上掲書, p. 148

148) 許俊 : 前掲書, p. 147

149) 江克明 包明蕙 : 校正方劑大辭典. 서울. 醫聖堂. 1969 p. 540 "腎氣丸 ...又名崔氏八味丸, 八味丸, 附子八味丸, 八味腎氣丸, 八味地黃丸, 料附八味丸."

- 4兩 澤瀉 白茯苓 牡丹皮 各3兩 肉桂 附子 各2兩
- 東醫寶鑑〔八味丸〕熟地黄 8兩 山茱萸 山藥 各4兩 澤瀉 白茯苓 牡丹皮 各3兩 肉桂 附子 各1兩
- 金匱要略〔腎氣丸〕乾地黄 8兩 山茱萸 山藥 各4兩 澤瀉 茯苓 牡丹皮 各3兩 桂枝 附子 各1兩
- 東醫寶鑑〔腎氣丸〕熟地黄 8兩 山茱萸 山藥 各4兩 澤瀉 白茯苓 牡丹皮 各3兩 五味子四兩

(3) 六味地黄元

① 小兒藥證直訣¹⁵⁰⁾

地黄丸

治腎虛解頤 或行遲 語遲等證

② 丹溪心法〔附餘 券十一〕¹⁵¹⁾

治老人尿血

〔附餘 券十一〕¹⁵²⁾

治血虛 腎虛 消渴淋濁

③ 古今醫鑑〔卷七 補益〕¹⁵³⁾

治形體瘦弱 無力多困 腎氣久虛 寢汗發熱 五臟虧損 遺精使血 消渴淋濁等症. 此藥不燥不寒 轉補左尺腎水 兼理脾胃. 少年水虧火旺 陰虛之症 最宜服之

〔卷八 淋閉〕¹⁵⁴⁾

治老人虛寒者 患死血作淋 痛不可忍. 倍茯苓 澤瀉.

④ 東醫寶鑑〔內景篇 腎臟 腎病治法〕¹⁵⁵⁾

血虛陰衰熟地黄爲君精滑山茱萸爲君小便或多或少或赤或白茯苓爲君小便淋瀝澤瀉爲君心氣不足牡丹皮爲君皮肉乾

澁山藥爲君「綱目」

〔雜病篇 虛勞 腎虛弱〕¹⁵⁶⁾

治虛勞腎氣衰弱久新憔悴發熱五藏齊損瘦弱虛煩骨蒸痿弱脉沈而虛...「回春」

〔考察〕

「方劑學辭典¹⁵⁷⁾」에 의하면 六味地黄湯이 언급된 最初의 文獻은 「小兒藥證直訣」이다. 八味丸 加減에서 나왔으며 小兒는 陽氣가 太過한 故로 八味에서 肉桂와 附子를 減 六味를 사용한 것에서 由來한다. 上記 文句에서 腎氣丸의 適應症을 보면 腎陽不足으로 인한 腰痛, 小腹拘急, 小便不利, 脚氣症으로 이는 陰氣味降으로 인한 少陽人 病證이 明白하다. 六味또한 腎水를 補하는 세가지 藥材를 除外한다면 利水方으로 「丹溪心法」에서는 陰虛로 인한 老人尿血 血虛 腎虛 消渴淋濁에 사용하였고, 「古今醫鑑」에서는 左腎水를 補한다고 했고 少年이 水虧火旺하여 陰虛之症에 매우 좋다고하였다. 李濟馬는 本方에서 少陽人 藥이 아닌 山藥¹⁵⁸⁾을 빼고 枸杞子로 代置함으로써 평소 陰氣가 손상되기 쉬운 少陽人의 虛勞를 治하였다.

處方構成 및 方解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熟地黄, 枸杞子는 腎의 降陰力을 좋게 해주면서 동시에 補陰, 補血의 效능을 지닌다. 山茱萸 또한 補陰의 效과가 있고, 澤瀉, 白茯苓은 陰氣의 소통을 위해 뚫어 주는 역할을 한다. 牡丹皮가 君藥으로 사용된 牧丹

150) 陳夢雷 等 : 古今圖書集成醫部全錄〔卷四百十六〕,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62, p. 384

151) 朱震亨 : 前掲書, p. 18

152) 朱震亨 : 上掲書, p. 35

153) 龔信 : 前掲書, p. 170

154) 龔信 : 上掲書, pp. 210-211

155) 許俊 : 前掲書, p. 147

156) 許俊 : 上掲書, p. 449

157) 江克明 包明憲 : 前掲書, p. 238

158) 전국한의학대학교 사상의학교실 : 前掲書, p.

地黃湯이 各種의 虛症으로 인한 滯症에 常用된 것¹⁵⁹⁾을 참조하면 牧丹의 辛味는 悶쳐진 것을 뚫어 주고 차가운 성질은 氣를 아래로 下降시켜 준다고 볼 수 있다. 六味에서 牧丹皮는 陰虛로 인해 熱性を 띠면서, 순조롭게 下降하지 못해 悶쳐진 기운을 辛寒한 성질로 풀어주는 작용을 한다고 볼 수 있다.

● 처방구성의 변화

- 小兒藥證直訣 熟地黃 8錢, 山藥, 山茱萸 各 4錢, 澤瀉, 牧丹皮, 白茯苓 各 3錢
- 古今醫鑑 熟地黃 8兩, 山藥, 山茱萸 各 4兩, 澤瀉 各2兩, 牧丹皮, 白茯苓 各 3兩

(4) 荊防地黃湯

① 東醫壽世保元¹⁶⁰⁾

9-22 盤龍山老人 曰 少陽人 身熱頭痛泄瀉者 當用 猪苓車前子湯 荊防瀉白散 身寒腹痛泄瀉者 當用 滑石苦參湯 荊防地黃湯 此病 名謂之 亡陰病

11-7 ...浮腫 初發 常用 木通大安湯 或 荊防地黃湯 加木通 日再服則 六七日內 浮腫必解 浮腫 解後 百日內 必用 荊防地黃湯 加 木通 二三錢 每日 一二貼用之 以清小便 以防再發 再發難治

[考 察]

荊防地黃湯은 六味地黃湯에 荊防敗毒散의 主材를 加한 處方으로 六味에서 太陰人 肺藥인 山藥과 裏病證에 該當하는 食滯滿證과 血證에 使用하는 牧丹皮를 빼고 羌活, 獨活, 荊芥, 防風, 車前子를 加하여 陰氣를 下降시키는 表病證의 意味를 強調한 處方이다. 이를 表病證의 荊防敗毒散의 입장에서 比較해 보면 少陽人 陰氣未降으로 인한 表病證에 表陰 뿐만

아니라 裡陰까지 虛한 상태이므로 荊防敗毒散에 순수하게 裡陰을 補하는 熟地黃과 山茱萸를 加味한 것이다. 李濟馬는 本方을 頭痛, 腹痛, 痞滿 泄瀉를 莫論하고 虛弱한 者는 數百帖을 쓰면 반드시 效果가 나지 않은 것이 없다¹⁶¹⁾고 하였다. 『東醫壽世保元』에 밝힌 本方의 加減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荊防地黃湯의 加減法

- 咳嗽 加前胡, 血證 加玄參 牧丹皮, 偏頭痛 加黃連 牛蒡子, 食滯痞滿者 加牧丹皮
- 有火者 加石膏 加石膏者 去山茱萸, 頭痛煩熱與 血證者 用生地黃

IV. 考 察

既存醫學의 辨證體系는 크게 陰陽辨證과 五行辨證 두 가지가 있다. 이는 다시 寒熱 虛實 表裏 陰陽으로 나누는 八綱辨證과 五行論에 바탕한 臟腑辨證으로 나눌 수 있다. 表裏 寒熱 虛實은 모두 그 개념상 陰陽의 部分 집합이므로 八綱辨證으로는 전체적인 陰陽偏差 만을 알 수 있을 뿐 어느 臟腑의 虛實인지는 파악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五行理論에 따른 相生相剋 理論으로써 臟腑의 虛實 關係와 因果 關係를 分析하여 病의 根源을 파악해 들어가는 臟腑辨證 方法을 사용했던 것이다. 이와는 다른 方面으로 陰陽 六經論에 따른 經絡學說이 있어 특히 外感疾患에 있어서 臟腑와 八綱辨證을 연결해 주는 고리역할을 했다. 이러한 醫學 理論들은 時代가 變遷해가면서 각

159) 전국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 上揭書, p.

160) 전국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 上揭書, p. 466, 472-473

161) 전국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 上揭書, p. 477 “無論 頭腹痛 痞滿 泄瀉 凡虛弱者 數百貼用之 無不必效 屢試屢驗”

각 그 시대 상황에 따라 流行하는 辨證體系에 差異를 보여 하나의 一貫性을 갖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反面에 四象醫學에서는 四臟의 大小偏差를 脾腎과 肝肺로 짝지어서 相對的으로 把握하였는데 脾腎은 升陽-降陰의 짝운동을 하는 것으로 少陰人, 少陽人의 病證은 陰陽升降의 病理로 分析되었다. 특히 少陽人의 表疾病은 體質的 특성상 陰氣未降이 病의 原因으로 그 治法 또한 陰氣를 下降시키고 熱邪를 除去하며 손상된 陰을 보충해줌으로써 무너진 陰陽升降의 均衡을 回復시켜주는 方法을 爲主로 했다.

少陽人 表病에 대한 인식은 文獻上으로 『素問·熱論篇』에서 六經病證을 陽證과 陰證으로 크게 나누고 여기에 經絡의 기초적인 概念을 導入하여 傳變過程을 설명하며 少陽病을 언급하고 있는데에서 그 原出處를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內經』에서는 發熱與否에 따라 陽證과 陰證으로 크게 나누고 治法 또한 少陽病은 陽證으로 發汗法을 제시하고 있어 基礎的인 水準에서 머물고 있다. 『傷寒論』亦是 당시 時代的 影響으로 六經과 陰陽論으로 病證을 분류하였는데 汗, 吐, 下法 만으로는 처리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지만 그 六經論的 病理觀에서 벗어나지 못했기에 단지 小柴胡湯을 이용하여 和解시키는 方法을 取했다. 이외에 結胸證, 亡陰證 등 少陽人 表病證에 대한 상당부분이 『傷寒論』에 나와있는 것을 볼 때 病證에 대한 認識은 이미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傷寒論』에서는 각각의 病證에 대해 陰陽六經論에 立脚한 經絡學的 개념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藥物治療에 있어서도 一貫性이 不足했다. 이에 비해 李濟馬는 人體를 上下部位에 따른 陰陽升降病證으로 要約함으로써 一貫性이 不足했던 既存醫學에 보다 發展的인 病理를 提示했다.

結胸證의 경우 『傷寒論』에서 太陽病을 잘못 攻下시켜 表熱이 內陷하거나 太陽經에서 陽明經으로

傳하여 陽明實熱이 內陷하여 胸中에 본래있던 水飲과 結合함으로써 胸膈部에 阻滯되어 나타나는 證으로 보고 그 症狀의 차이에 따라 大陷胸湯, 小陷胸湯, 五苓散, 十棗湯, 三物小白散 등의 升陽, 降陰藥을 相雜하여 사용하였다. 이후 醫家들 역시 『傷寒論』의 病理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다. 이에 비해 李濟馬는 少陽人 結胸證은 陰氣未降으로 少陽傷風證이 甚化되어 水氣와 熱邪가 中上焦인 胸膈部에 阻滯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汗遂에 의해서만 풀릴 수 있는 少陽人 表病證의 段階的 症狀임을 밝혔다.

亡陽, 亡陰에 대한 概念 역시 既存醫學과 크게 差異가 있음을 알 수 있다. 『傷寒論』에서는 亡陰에 대해서는 언급된 바가 없고 단지 亡陽이란 脫氣현상으로 過多汗出에 의해 이루어지며 下法에도 관계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후 『得效方』에서 亡陽이란 氣를 損傷하는 것이고 亡陰이란 血을 損傷한다는 것으로 亡陽, 亡陰을 氣血의 觀點에서 把握함으로써 그 뜻을 좀더 명확히 했다. 『醫學入門』에서는 亡陰의 症狀로 小便難을 제시하여 少陽人 病理에 近接했다. 그러나 後代에 올수록 亡陽과 亡陰의 病理를 정확히 구분하지 못하고 相互依存的인 關係로 보았다. 이에 李濟馬는 亡陽이란 올라가야 할 陽氣가 오르지 못하고 도리어 下降하는 것이라고 하였고, 亡陰이란 내려가야 할 陰氣가 내려가지 못하고 도리어 上升하는 것임을 明白히 밝혀 亡陰證이 陰氣未降이라는 體質的 脆弱點에 따른 少陽人 病證임을 명확히 했다.

즉, 李濟馬는 少陽人 病理를 陰陽升降의 構造속에서 陰氣未降으로 인한 體質病理로 一貫하고 『傷寒論』에서 대부분의 病證을 발견해냈다. 少陽人 表病에 있어서 그 주요 病證을 살펴보면 첫째 頭痛을 들 수가 있다. 『東醫壽世保元』 條文을 살펴보면 頭痛이라는 病證은 少陽人 表病證에서 17번, 裏病證에서

10번 합해서 27번이 나타난다. 이에 반해 少陰人의 경우에 表病證에 6번, 裏病證에 2번, 합해서 8번이 나타날 뿐이다. 太陰人의 경우에도 表病證에서 2번, 裏病證에서 2번, 합해서 4번이 나타날 뿐이다. 또, 條文 9-45에서 “凡 少陽人 表病 有頭痛 裏病 有便秘 則 已爲重病也”라하여 少陽人 表病證에 頭痛을 重證으로 보았다.

둘째 眩暈을 들 수 있다. 條文 9-13을 보면 張仲景의 『傷寒論』에 根據하여 “少陽之爲病 口苦 咽乾 目眩也”라고 하여 目眩이 少陽傷風證의 必需 症狀임을 밝혔다. 『東醫壽世保元』 條文을 살펴보면 目眩이라는 病證은 少陽人 表病證에서 5번나올 뿐 少陽人 裏病證이나 少陰人 病證論, 太陰人 病證論에서는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

셋째 胸脇滿을 들 수 있다. 이는 少陽人의 體質病理上 陰氣가 下降하지 못하고 中上焦에 阻滯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病證이다. 少陽人은 病證이 주로 中上焦인 胸脇部에 나타나게 되는데 『東醫壽世保元』을 살펴보면 ‘胸’字가 44번, ‘脇’字가 8번으로 가장 많이 나타나게 된다. 少陰人 病證은 주로 下焦인 小腹에 나타나게 되는데 이는 少陰人 체질병리상 陽氣가 上升하지 못하고 下焦인 小腹에서 멎기 때문이다.

넷째 小便不利를 들 수 있다. 五苓散證과 豬苓湯證에서 보여주듯이 陰氣가 枯渴되면 水氣下降이 안 되기 때문에 물을 많이 마셔도 小便不利 症狀이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利尿劑는 少陽人 藥物로 分類된다. 少陰人의 경우에 下焦血證에 ‘小腹硬滿 小便自利¹⁶²⁾’하며 太陰人의 경우에는 太陰人 燥熱病에 ‘陰一溲¹⁶³⁾’하게 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少陽人 表病證에 사용된 藥物에 대해 살

펴보면 李濟馬는 少陽人 表病證에 사용된 主要藥物 또한 陰陽升降의 觀點에서 再把握하고 各各의 處方에 應用했음을 알 수 있다.

少陽人 表病證 處方에서 基本藥物인 羌活, 獨活, 荊芥, 防風은 『少陽人 辨證論』에서 모두 補陰藥으로 분류하고 荊芥와 防風은 胸脇의 風寒을 풀어주며 羌活과 獨活은 膀胱의 眞陰을 크게 補한다¹⁶⁴⁾고 하여 그 差異를 두었다. 이것은 羌活, 獨活, 荊芥, 防風이 모두 辛溫解表藥物로서 體表를 훈훈하게하여 寒邪를 물리치는데 특히 既存 處方에서 以上 네가지 藥物끼리 서로 配合되어 응용됨으로써 다른 辛溫解表藥物과 다른 共通點이 있음을 發見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少陰人 微發汗劑인 藿香, 蘇葉과 比較해보면 같은 辛溫解表藥物이지만 羌活, 獨活, 荊芥, 防風은 陰氣를 下降시키는 作用이 있어 少陽人 表病의 基本藥物로 常用되고 藿香, 蘇葉은 飲食傷을 풀어주는 健胃 行氣貫中 作用을 가지고 있어 少陰人 表病에 微發汗劑로 사용되는 것이다. 그러나, 羌活, 獨活, 荊芥, 防風을 補陰劑로 分類하였지만 이는 순수하게 腎陰을 補하는 熟地黃, 山茱萸와는 別個로 降陰藥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茯苓, 澤瀉, 豬苓, 車前子와 같은 藥物들은 滲濕 利尿 藥物로 水氣를 下降시킴으로써 陰氣를 下降시키고 熱證을 小便으로 排出하는 少陽人 藥物이다. 藥性에 따라서 程度의 差異를 갖는데 豬苓과 車前子が 豬苓車前子湯에서 知母, 石膏와 함께 사용된 것을 볼 때 보다 熱證에 이용된다고 하겠다.

少陽人 病證이 『傷寒論』에서 대부분 발췌된데 비해 李濟馬는 少陽人의 處方은 『傷寒論』에서 몇 개의 藥物만을 取했을뿐 宋代以後의 處方에서 母方을 찾았다. 主要 處方을 중심으로 그 母方을 定理하

162) 전국한외과대학 사상의학교실 : 上揭書, p.

163) 전국한외과대학 사상의학교실 : 上揭書, p.

면 다음과 같다.

荊防敗毒散의 母方은 敗毒散으로 「和濟局方」의 人參敗毒散이 原出處이다. 그러나 李濟馬는 「東醫壽世保元」에서 龔信의 荊防敗毒散을 母方으로 보았는데 이는 敗毒散이 龔信에 와서야 비로소 荊芥, 防風이 첨가됨으로써 荊防敗毒散의 형태를 갖추었기 때문으로 思料된다. 또, 龔信의 蓮翹敗毒散에 少陽人 涼膈散火湯之材인 蓮翹가 添加됨으로써 少陽人의 體質病理에 근접한 點을 높여 評價한 것으로 보인다.

荊防導赤散의 母方은 「和濟局方」의 導赤散이다. 李濟馬는 荊防敗毒散에 導赤散의 主要藥材인 木通과 生地黃을 加하여 少陽傷風證의 胸脇煩滿, 小便不利證에 應用한 것이다.

荊防瀉白散은 荊防敗毒散에 「傷寒論」의 白虎湯의 의미를 加하여 이루어진 處方으로 構成上 荊防敗毒散에서 生地黃을 3錢으로 增量하고 知母와 石膏를 加했다. 이는 少陽傷風證이 進行되어 이미 內部로 裏熱이 形成된 狀態에서 白虎湯의 主材인 知母와 石膏를 加하여 裏熱을 풀어주는 處方이다. 「傷寒論」의 白虎湯證은 外感病에 裏熱이 생기는 少陽人 특유의 體質病證으로 인하여 身熱, 頭痛, 脈實, 煩躁가 나타나는 少陽人 裏熱證이다. 이에 비해 石膏를 대폭 增量한 地黃白虎湯은 四象醫學的 觀點에서 보면 少陽人 裏熱이 甚해짐으로써 便秘가 主要症狀이 된 때에 사용된다.

豬苓車前子湯의 母方은 「傷寒論」의 豬苓湯이며 陰氣가 損傷되기 쉬운 少陽人으로 平素 몸이 차고 泄瀉를 잘하는 경우에 나타나게 되는 亡陰證 熱證에 이용된다. 「豬苓湯」이 陽明熱이 아니라도 泄瀉를 數次한 以後에 발생하는 水分과 熱의 結滯로 인한 咳而煩渴 心煩不得眠 小便不利 證에 應用된다고하여 일반적으로 少陰病은 清穀을 下痢하고 渴하지 아니한 證이 常例인데 도리어 裏熱에 의한 證을 나타내

는 體質이 있다고 인식했던 것이다. 이에 利水之劑를 君藥으로하여 水氣를 下降시키는 處方으로 後代에 형성된 大分清飲에서 좀더 近接했음을 알 수 있다.

荊防地黃湯은 少陽人 表病 虛勞證에 쓰이는 處方으로 荊防敗毒散에 손상된 表陰 뿐만 아니라 순수하게 腎陰을 補하는 熟地黃, 山茱萸를 加하여 만들어진 處方이니 母方은 「小兒藥證直訣」의 六味地黃元으로 볼 수 있다.

V. 結 論

少陽人 脾受寒表寒病論의 少陽傷風證, 結胸證, 亡陰證에 관한 過去 病論과 處方 및 主要藥物을 조사,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1. 傷寒論의 病理가 六經陰陽의 經絡學的인 반면에 李濟馬는 人體를 陰陽升降 및 聚散이라는 病理的 觀點에서 四象體質을 分類하고 既存病證, 治法, 處方을 再分類함으로써 既存醫學에 비해 보다 發展的인 病理를 提示했다.
2. 少陽人 脾受寒表寒病은 陰陽升降의 體質病理的 構造에서 陰氣未降으로 因한 것으로 少陽傷風證, 結胸證, 亡陰證의 病證으로 分類된다.
3. 李濟馬는 少陽人 表病證을 대부분 張仲景의 「傷寒論」에서 取하였으나, 處方에 있어서 몇몇 藥材를 인용했을 뿐 宋代以後 處方으로 代身했다.
4. 少陽人 脾受寒表寒病은 陰氣未降으로 因한 것으로 中上焦(頭目, 胸膈部)에 病證이 나타난다.
5. 少陽人 表病證의 主要 藥材인 羌活, 獨活, 荊芥, 防風은 少陰人 微發汗劑인 藿香, 蘇葉과 比較해 보면 같은 辛溫解表藥으로 體表의 寒邪를 몰아내고 陰氣를 下降시킨다는 점에서 差異가

있다.

6. 茯苓, 澤瀉, 豬苓, 車前子와 같은 利水之劑는 少陽人 藥材로서 陰氣枯渴로 水氣下降이 안되는 少陽人 亡陰證, 小便不利 等の 證에 應用된다.
7. 少陽人 表寒病證의 處方構成은 陰氣를 下降시키는 藥物을 基本前提로 그 症狀程度에 따라 수반된 胸膈熱을 치고, 損傷된 陰氣를 補하는 藥材를 添加함으로써 構成되었다.

參 考 文 獻

1. 陳夢雷 等 : 古今圖書集成醫部全錄 卷四百十六,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62
2. 龔 信 : 古今醫鑑, 江西, 江西科學技術出版社, 1990
3. 江克明 包明蕙 : 校正方劑大辭典, 서울, 醫聖堂, 1969
4. 李克光 外 : 金匱要略,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9
5. 朱震享 : 丹溪心法, 中華民國, 五州出版社, 1970
6. 文溶典 等 : 東醫病理學(1), 서울, 慶熙大韓醫科大學 病理學教室, 1985
7. 許俊 :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83
8. 李濟馬 : 東醫壽世保元, 서울, 麗江出版社, 1992
9. 韓東錫 : 東醫壽世保元註釋, 서울, 誠理會出版社, 1967
10. 全國韓醫科大學 本草學教授 : 本草學, 서울, 永林社, 1991
11. 전국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1997
12. 李乙浩, 洪淳用 : 四象醫學原論, 서울, 행림출판사, 1973
13. 李道耕 : 四象要覽, 익산, 圓佛敎出版社, 1995
14. 尹吉榮 : 四象體質醫學論, 서울, 明寶出版社, 1986
15. 蔡仁植 : 傷寒論譯註, 서울, 高文社, 1971
16. 郭子光, 瀉顯孫 : 傷寒論湯證新編,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3
17. 危亦林 : 世醫得效方, 欽定四庫全書 子部五 醫家類14, 서울, 大星文化社, 1995
18. 申佶求 : 申氏本草學, 서울, 壽文社, 1987
19. 林通國 : 實用臨證中藥指南, 中國 成都, 四川科學技術出版社, 1990
20. 宋一炳 : 알기쉬운 사상의학, 서울, 하나미디어, 1993
21. 朱肱 : 原本增注類蒸活人書, 서울, 南山堂, 1987
22. 辛民教 : 原色臨床本草學, 서울, 南山堂, 1986
23. 鄭遇悅 : 醫學史, 서울, 圓光大學校 韓醫科大學, 1987
24. 虞搏 : 醫學正傳, 서울, 成輔社, 1987
25. 중국연변 조선민족의약연구소 : 조선민족사상 의학, 서울, 여강출판사, 1991
26. 江蘇新醫學院 : 中藥大辭典, 서울, 成輔社, 1982
27. 新文豐出版公司 : 中醫學辭典, 台北, 新文豐出版公司, 1982
28. 龔信 : 增補萬病回春, 서울, 一中社, 1991
29. 陳師文 等 : 太平惠民和劑局方, 中國醫藥叢書, 旋風出版社, 1964
30. 金晷壽 : 標準本草學, 서울, 進明出版社, 1975
31. 李鳳教 等 : 韓方診斷學(上下), 서울, 成輔社, 1988
32. 楊惟傑 : 黃帝內經素問靈樞譯解, 서울, 成輔社, 1980

33. 洪性範, 金敬堯, 洪淳用 : 東醫壽世保元 醫源論을 중심으로 醫學史에 관한 研究, 四象醫學會誌 4(1), 1992
34. 金龍國 : 亡陽, 亡陰에 對한 證治醫學과 四象醫學과의 比較 考察, 四象醫學會誌 3(1), 1991
35. 宋一炳 : 四象人 體質證과 體質病證의 成立過程에 對한 研究, 四象醫學會誌 6(1), 1994
36. 朴性植, 宋一炳 : 四象醫學의 醫學的 淵源과 李濟馬 醫學思想에 對한 研究, 四象醫學會誌 5(1), 1993
37. 宋孝貞 : 少陽病의 病理에 관한 文獻的 考察, 四象醫學會誌 2(1), 1990
38. 金一煥, 金敬堯 : 少陰人 補中益氣湯과 補中益氣湯에 對한 四象醫學的 比較 研究, 四象醫學會誌 8(2), 1996
39. 金敬堯 : 李濟馬의 醫學史觀에 對한 考察, 四象醫學會誌 6(1), 1994
40. 宋一炳 : 李濟馬 哲學의 學問的 背景과 四象醫學의 成立에 對한 考察, 四象醫學會誌 3(1), 1995
41. 河萬秀 : 汗을 中心으로 한 體質病證에 對한 考察, 四象醫學會誌 5(1), 1993